

서민에게 힘이되는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발간사

PART 1. 법률홍닥터 소개

법률홍닥터란?	9
법률홍닥터가 하는 일은?	9

PART 2. 법률홍닥터 우수사례 모음

1. 소녀가장, 동생들과 살아갈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하다!	
-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사망한 소녀가장의 임대아파트 승계를 도운 사례	13
2. 이제는 동생과 함께 깨끗하게 살아갈 거예요!	
- 가정폭력피해를 당하던 의뢰인을 도운 사례	16
3. 건물도 없는데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대주택 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 건축물 멸실확인서를 받아 지적 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 사례 ...	19
4.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울 경제적 어려움에 걱정이 앞섭니다.	
-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린 사례	23
5.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기까지	
- 공동상속인의 실종신고절차를 도와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26
6. 여성으로서의 삶을 되찾아준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하여 여성보호시설 입소를 도운 사례	29
7.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중재한 사례	31
8. 평생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다.	
- 임차권등기명령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을 통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초수급가정을 도운 사례	34
9. 나는 동생의 보호자입니다.	
- 성년후견인이 되어 보호가 필요한 여동생과 조카들을 지원하게 된 사례	37
10. 이제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는 거죠?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을 통한 기존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명의 변경 사례	41

11. 빚 독촉, 견디기 힘들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신청, 면제재산결정신청을 도운 사례	44
12. 빚이 너무 많아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채무조정에 도움을 준 사건	48
13. 압류된 예금... 생계비는 찾을 수 있다!	
- 압류범위변경을 통해, 압류된 예금을 풀어 생계비를 지켜준 사례	51
14. 사실혼관계배우자 사망 이후... 영구임대아파트 임차권 승계!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임차권 승계를 도운 사례	54
15. 40년 전에 산 토지의 주인이 되고자 판결을 받았는데... 등기가 안된다고 하네요!	
- 매도인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북한주민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사례	57
16. 손자 명의로 휴대폰 요금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 가출한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시켜 사용한 사건	60
17. 집이 안 팔려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요?	
-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	64
18. 미혼부의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갖기까지	
- 미혼부 자녀의 친자 등록을 통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례	67
19. 12년 만에 물품대금 독촉에서 벗어나다	
-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난 사례	71
20. 값아도 늘어나기만 하는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채무자를 도운 사례	74
21. 경매로 넘어간 집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 지키기	
-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요구신청을 도운 사례	77
22. 세상에 혼자 남겨진 초등학생과 그 외할아버지	
- 미성년후견인변경심판청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구조금제도	80
23.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도록!	
- 한부모가족 여성 가장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84
24. 빚 독촉, 채무조정, 그리고 새 출발!	
- 양육비채권을 둘러싼 분쟁을 채무조정을 통하여 해결한 사건	88
25.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다	
- 내용증명을 통해 여성 독거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	92

26. 카드 대금 연체 독촉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 공정추심법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적인 채무독촉에서 벗어난 사례	95
27. 생계유지가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기초수급을!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운 사례	98
28.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의 빛	
– 이혼, 대포차, 채무조정, 임대아파트 입주 등 의뢰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 사례	101
29. 딸이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 북한이탈주민자녀의 가족관계등록을 도운 사례	105
30. 저희 아이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싶어요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도운 사례	108
31. 억울해서라도 퇴직금을 꼭 받아내고 싶어요	
– 포기했던 소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례	112
32. 삶의 터전이었던 집이 경매에...	
– 경매에 부쳐진 임차주택에 대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안내하고 배당받은 금원을 통해 기존주택전세 임대제도를 이용하도록 도운 사례	115
33. 행복을 지켜라! 행복지킴이 통장	
– 수급비 통장이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운 사례	119
34.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사회적 관심과 손길을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생후 10일된 유아를 가정에서 분리한 사례	122
35. 우리 딸이 언제쯤 밝은 얼굴로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 2년 동안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한부모가정의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어머니를 도운 사례	126
36. 피해자는 나인데 억울합니다.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직원을 도운 법률상담 사례	129
37. 먼저 떠난 아들... 가슴도 먹먹한데 남겨진 빛은 어이할꼬!	
– 채무의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도운 사례	132
38. 야밤에 습격을 당하여 크게 다친 할아버지, 어디서 배상받아야 하나요?	
–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긴급생계비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도운 사례	136
39. 이혼 후 합의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감치 및 과태료 신청을 도운 사례	139
40. 20센티미터 땅 때문에 삶의 터전인 집이 철거될 뻔 했어요.	
– 건물철거 등 청구를 받은 모자의 항변을 도운 사례	142

PART 3. 법률홈닥터 활동모음

서울 강서구청 한경희	149
인천 강화군청 서유진	150
광주 서구청 정훈재	151
경기 김포시청 김지원	152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김은성	153
경남 남해군청 박지현	154
대구 달서구청 이창욱	155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유태권	156
경기 동두천시청 박옥성	157
부산 남구청 박보름	158
부산 사상구청 김경애	159
서울 서대문구청 조을원	160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임규선	161
대구 수성구청 손지영	162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김태진	163
경기 이천시청 황준협	164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정유미	165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박은지	166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양영화	167
경북 경산시청 오지현	168
경기 광명시청 경규연	169
충남 태안군청 김민정	170
서울 동작구청 전경인	171
경기 남양주시청 민동순	172
충남 천안시청 한윤정	173

PART 4. 법률홈닥터 감사글 모음

● 2013. 06. 19.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77
● 2013. 07. 17.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78
● 2013. 10. 22.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80
● 2013. 11. 20.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81
● 2013. 12. 08.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83
● 2014. 01. 02.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85
● 2014. 04. 14.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88
● 2014. 04. 21.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90
● 2014. 05. 21.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92
● 2014. 06. 19.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93
● 2014. 06. 26.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94
● 2014. 07. 07.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95
● 2014. 07. 08. 속초시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96
● 2014. 07. 10.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97
● 2014. 08. 29.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199
● 2014. 10. 23. 강서구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201
● 2014. 11. 11.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202

1

Part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법률홈닥터 소개



● 법률홈닥터란?

- 법률홈닥터 사업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 아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1차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

● 법률홈닥터가 하는 일은?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 지원을 펼칩니다.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 안전망과 연계해서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기도 합니다.
 - 법률홈닥터는 지역사회에 밀착해서 지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 맞춤형 상시 법률상담과 법 교육을 합니다.
 - 수요자에 맞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생활법률 교육, 인권보호 법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 종래 법원 · 검찰청 인근에 가야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동네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법률홈닥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서민 법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법률홈닥터는 기존 지역 사회복지망과 법률구조 인프라를 연결해서 '서민과 사법시스템 사이의 다리', '법률보호의 모세관' 역할을 합니다.
 - 1차 법률서비스를 넘어서 소송구조 등 다음 단계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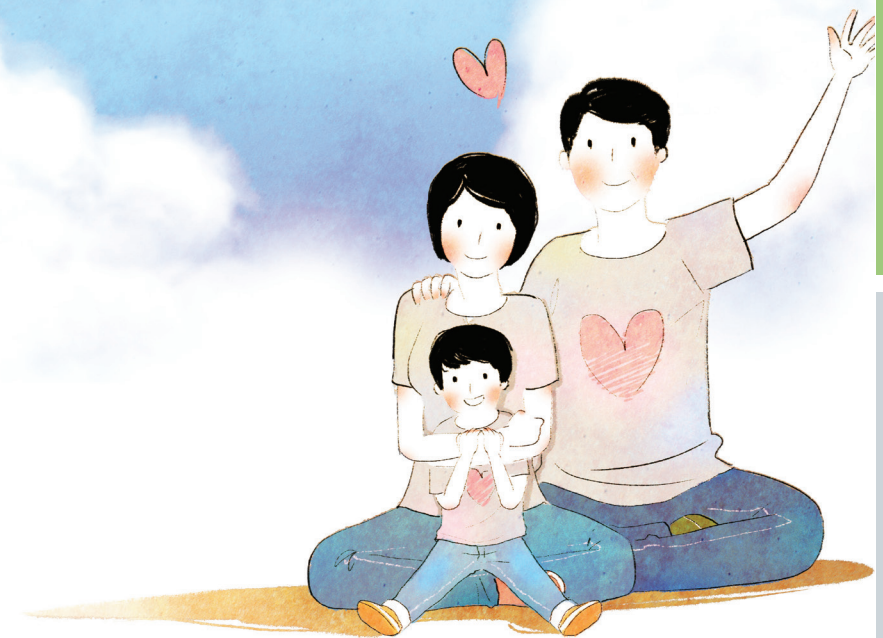
2

Part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법률홈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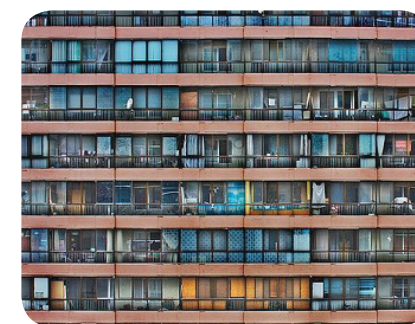
우수사례 모음



01 | 소녀가장, 동생들과 살아갈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하다!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사망한 소녀가장의 임대아파트 승계를 도운 사례

“엄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저희 삼남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생인 A양은 어머니, 동생 B군(지적장애3급), C양(초등학생)과 함께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확장성 심장근육병 증 등을 동반한 합병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고, 이에 A양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설상가상 어머니에게는 은행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빚 4200만원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쓰러지기 전 한 법무사에게 파

산을 의뢰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쓰러지시면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다 내지 못해 파산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어머니의 입원비도 거침없이 불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A양은 동주민센터를 찾았고 구청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며 법률홈닥터를 만나게 되었다. 병원에서도 곧 어머니가 사망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A양은 어머니 사망 후 파산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법률홈닥터는 구청 사례관리사와 함께 A양의 집에 방문했다.

어머니의 채무에서 벗어나고, 동생 이름으로 임대아파트를 승계하다.

A양의 문제를 들은 법률홈닥터는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이니 사망 후에 자녀들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고 파산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한정승인한 자녀의 이름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후 A양은 법률홈닥터의 상담 내용대로 법무사를 찾아가 어머니가 제출한 파산 관련 서류를 모두 찾아왔다. 한편 이 무렵 구청의 도움으로 A양 가족은 '초록우산재단'에 연계되었고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하여 2000만원을 후원받아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에서도 벗어났다.

그 후 어머니는 결국 사망하였고, 법률홈닥터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임대아파트의 명의를 자녀가 승계하도록 도왔다. A양은 지적장애가 있고 향후에도 주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동생 B군 명의로 아파트를 승계하고 싶다고 하여, B군은 한정승인을, A양과 C양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양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가 '불상'으로 기재되어있고, 모(母)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A양은 C양을 자신이 계속 돌볼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A양을 C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상속인 금융재산조치를 마친 후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B군에 대한 한정승인 및 A양에 대한 상속포기결정을 받았고, A양이 후견인이 되어 C양에 대하여도 상속포기결정이 내려져서 B군의 명의로 영구임대아파트 승계가 이루어졌다.

“제가 감당하기 무거운 짐이었는데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셔서 해결했습니다.”

A양은 아파트 승계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법률홈닥터와 20회 이상의 면접 상담을 하였다. A양은 법률홈닥터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어 이렇게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였고, 아파트 승계 이후 한층 밝은 얼굴로 대학교에 다니는 A양을 만날 수 있었다.

● 상속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명의승계



》 임대아파트 명의승계란?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계약자(사망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부터 계약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상속인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계약자의 명의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계약자가 사망하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망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을 자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명의 승계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명의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계약자 사망 전에 함께 세대원으로 거주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거주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아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의승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 구비서류
- 제적등본
- 상속대상자 가족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최종 월 임대료, 관리비납부 영수증

위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승계승인서
- 임대주택 상속동의서
- 무주택 서약서
- 임대아파트 전대금지 각서
- 생활편익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02 | 이제는 동생과 함께 꽃꽂하게 살아갈 거예요!

가정폭력피해를 당하던 의뢰인을 도운 사례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궁리만 했어요."



의뢰인 A씨(여, 22)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그런데 의뢰인의 삶은 그리 평범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의뢰인이 어린 시절 이혼하였고, 어머니의 소식은 이혼 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이 생활하면서 일없는 날이면 집안의 집기들을 부수고, 의뢰인과 동생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의뢰인

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된 지금은 아버지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복지시설의 권유로 법률홈닥터를 찾아왔다.

긴급주거지원과 피해자보호명령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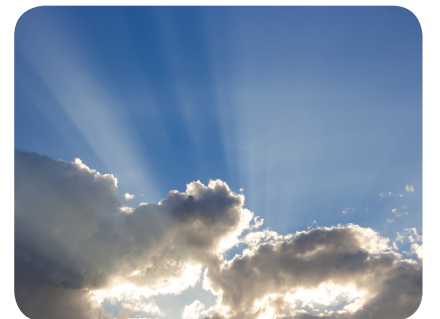
법률홈닥터는 의뢰인을 만난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재빨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곳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공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준

천시청 복지지원과에 문의를 하였다. 복지지원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서 긴급주거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했고, 며칠 뒤 긍정적인 답변을 전해왔다.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 임시거처 등 새로운 곳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률홈닥터는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특히 법원이 발령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서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가장 실질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은 의뢰인은 법률홈닥터의 의견에 동의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법률홈닥터는 의뢰인에게 진술서, 동생의 진술서,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에 노력을 해 법원은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해 주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임시주거를 확보하고 아버지의 접근을 차단하게 된 의뢰인은 어머니와 헤어진 뒤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법률홈닥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제 동생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동생이 내년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함께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충분히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미래의 설계까지 그려 보여주었다. 특히 시청의 복지지원과와 함께 협업을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폭력의 두려움 없는 곳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어 준, 법률홈닥터에게도 의미 있고 보람된 사례였다.



● 긴급주거지원, 피해자보호명령



>> 긴급주거지원,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긴급주거지원은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원에서 부과하는 일련의 보호조치이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정기준 이하의 경제상황에 놓인 경우 혹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특히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단을 토지구택공사에 통보한 후, 토지구택공사의 안내에 따라 입주할 주택을 결정하고, 토지구택공사와 입주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는 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아래의 조치가 각 혹은 병과 되어 판사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해자 또는 가구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구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긴급주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다.

피해자보호명령청구는 별도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한다. 제출 시 필요한 증거서류는 가정폭력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면 충분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진술서, 진단서, 입소 혹은 상담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자료 등 다양하게 준비가 가능하다.

03 건물도 없는데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대주택 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건축물 멸실확인서를 받아 지적 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 사례

글을 읽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갑자기 날아온 “임대주택 지원 종료 통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인 A씨(55세)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LH공사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무상거주 하면서 수급비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씨는 지적인식 능력이 만 12세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하며 글을 읽지 못하여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보조를 받고서야 자신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크게 절망하여 수소문 끝에 법률홈닥터를 찾아오게 되었다. A씨는 LH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 지원 종료 및 이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 통지를 수령하였고, 임대주택 지원 종료 사유는 의뢰인이 강화군에 있는 한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이었다. 목사님은, A씨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서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소명자료 제출시한 연장부터

통지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소명자료 제출시한이 A씨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다음날로 기재되어 있어 시간이 매우 부당하게 촉박하였다(송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법률홈닥터는 우선 LH공사에 연락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소



명자료 제출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자료 제출 시한을 10일 뒤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여, 소명자료 제출기간의 도과로 임대주택 지원이 종료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언어 능력이 부족한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사연

A씨는 언어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 긴 시간 A씨와의 법률상담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건축물 대장상 건물이 존재한다는 곳은 의뢰인이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소유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후 약 10년 전 A씨의 동생이 위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이전하고 자신을 내쫓아 자신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었으며, 현재 그 자리에는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와 같은 건물은 없고 옆 토지에 걸쳐 동생의 집 건물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뢰인의 주장이 이와 같더라도 형식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의뢰인의 명의로 건물이 존재하였으므로 의뢰인의 무주택을 소명하기 어려워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불가능할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글을 읽지 못하고 언어 표현도 미숙하여 스스로 다른 주거를 찾거나, 자신의 사정에 관하여 소명 자료를 작성·제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법률홈닥터가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말소 신고 및 소명자료 제출의 전 과정을 보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건축물 멸실 확인서를 받고 임대주택 지원 자격을 유지하다.

강화군청과 협력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본 결과 A씨의 동생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부실한 기재를 하여 예전에 대장상에서 말소 되었던 A씨의 건물이 2008.경 다시 부활하여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건물이 멸실되었음을 입증하여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는 의뢰인 및 목사님과 해당 건물 자리를 방문하여 토지 현황 및 건축물의 실상에 대한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지적도상의 토지현황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 대장의 오류를 입증하였고, 강화군청도 부당하게 부활된 건축물 대장 기재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비

교적 빨리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이틀 앞두고) 건축물 멸실 확인서를 받고 건축물 대장상 의뢰인 명의로 기재된 건축물의 말소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사진, 지적도, 건축물 멸실 확인서 및 건축물 말소 대장을 첨부하여 LH공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 후 3일 뒤 김씨는 LH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 지원종료 결정이 철회되어 임대주택 지원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다.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 주는 변호사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A씨는 과거 집이 없어 노숙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이 전세임대주택에서 쫓겨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고, 특히 글을 읽지 못하여 통지서 등을 보면 당황할 뿐 어느 곳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전세임대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오면 된다는 희망이 생겨 든든하며 감사를 표시하였다.



마음을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A씨의 경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여 목사님의 통역 아닌 통역을 참고하는 등 법률 상담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으나, 법률홈닥터가 아니라면 A씨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 줄 곳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책임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찾아가는 법률 상담”은 물리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신

체 내지 정신의 장애 때문에 소통의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소통하고 법률 상담을 이끌어내는 일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감사의 의미로 법률홈닥터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해주겠다는 A씨의 정성 어린 약속을 되새겨보면서, 법률홈닥터는 A씨와 같은 장애인들이 장애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뢰인의 “마음을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건축물 멸실 신고 등 절차



≫ 의의

「건축법」 제36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철거 신고),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멸실 신고).”고 규정하고 있다.

≫ 취지

건축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철거 내지 멸실 신고를 거쳐야 비로소 그 건축물이 각종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과거에 이미 멸실되었거나 건축물로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

≫ 신고 방법 및 절차

- (1)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하여 제출한다.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양식은 민원24홈페이지 양식 검색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 (2) 건축물이 등기된 경우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멸실이 확인되더라도 등기된 건물의 경우 등기명의인은 1개월 안에 멸실 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04 |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울 경제적 어려움에 걱정이 앞섭니다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린 사례

“등본 떼러 동사무소 가는 길이었어요.”

미성년자인 딸과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A씨는 2009년도 경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노모와 셋이서 동거를 하였고 처음에는 이와 같은 생활에 남편도 불만을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A씨의 친정식구인 친언니와 친오빠가 A씨의 집을 매번 찾아와 상속받은 재산을 내놓으라는 싸움이 여러 차례 있는 후 남편과의 불화도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 재혼을 하였으나 A씨는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였다. A씨가 이혼을 한 후 친정식구들의 압박은 더 심화되었다. 친정식구들은 A씨가 받은 상속재산이 만약 A씨가 사망한다면 전남편에게 상속될 것이라며 그 재산을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강요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변변한 소득 없이 홀로 딸을 키우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월 30만원의 양육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남편은 A씨에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남편이 재혼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자신보다 딸을 위해서 양육비를 받기로 결심했다. A씨는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는 사실을 센터 공무원에게서 듣고 법률홈닥터를 만나게 되었다.

“남편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법률홈닥터는 양육비채무자인 전남편이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는 자라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양육비채권자인 A씨에게 양육비에 해당하는 급여가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전남편은 프리랜서여서 적지만 월급을 받기도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만약 전남편이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담보제공이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위의 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안내해 드렸다.

다음으로 법률홈닥터는 앞으로 발생할 친정식구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비하여 집안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안내해 드렸다. 혹시 친정식구들이 A씨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주거에 들어온다거나 폭행을 한다면 형사 고소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 또한 A씨의 재산은 A씨가 사망하더라도 전남편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렸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법률홈닥터가 만났을 때 A씨는 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믿고 의지해야 할 친정식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많이 위축되어 보였다. A씨는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상속재산을 친정식구에게 넘겨줄까 싶다가도 자신이 혹시 사망한다면 혼자 남게 될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갈등하였다.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친정식구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법률홈닥터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A씨는 자신이 방어할 방법과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명이라도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며 자리를 일어났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05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기까지

공동상속인의 실종선고절차를 도와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행방불명된 새어머니의 실종선고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 재산을 포기할까도 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아버지와 단둘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중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준 A씨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 3,000만원을 모두 A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A씨는 은행에 위 예금을 인출하러 갔으나, 또 다른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 B씨의 동의서도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새어머니 B씨는 A씨의 아버지와 재혼을 한 후에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행방불명 상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A씨와 형제들은 새어머니의 소재파악을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생사여부조차 알 수가 없었다. A씨는 주변의 조언으로 가정법원에 새어머니에 대한 실종선고절차를 진행하였다. 실종선고절차를 홀로 진행하던 A씨는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의 어려운 말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자세히 물어볼 곳도 없어 예금을 찾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였다.

새어머니의 실종선고결정을 받다.

A씨의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은 법률홈닥터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률홈닥터는 A씨와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우선 법률홈닥터는 진행 중인 실종선고심판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보정명령이 나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드렸다. 그리고 실종선고심판청구서에 기재한 B씨의 실종일을 최종 출입국내역일 이후로 다시 특정하도록 하였고,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작성한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후 진행될 6개월의 공시최고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렸다. 이후 공시최고가 종료하여 실종선고가 인용되었고, A씨는 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을 전부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피와 땀으로 남기신 재산,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활이 막막했으나 형제들의 배려로 한숨을 돌렸던 A씨는 실종선고라는 어려운 절차를 맞닥뜨리고 막막하기만 하였다. A씨는, 그러한 순간에 법률홈닥터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힘들게 모으셨을 예금을 포기할 뻔 했다면, 실종선고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서류작성을 도와준 법률홈닥터가 없었다면 이를 잘 마무리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 실종신고



》 실종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이 큰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실종선고의 요건은?

실종선고는

- 1) 부재자의 생사불명(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
- 2) 실종기간의 경과(보통실종 5년,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난으로 인한 특별실종 1년)
- 3)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 4)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공시되고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또는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실종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06 여성으로서의 삶을 되찾아준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하여 여성보호시설 입소를 도운 사례

“여성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성으로 되어 있어
여성보호시설 입소가 불가능해요.”

B씨는 1975.경 기초생활수급금 및 그 외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지적장애 1급인 A씨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찌된 영문 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의 성별이 「女」가 아닌 「男」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B씨는 A씨 이외에도 지적장애로 버려진 아이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금 등을 받아 왔다.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B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A씨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에 지역 장애인·가정상담소 담당자는 A씨가 여성보호시설로 입소하는 방법을 추진하였으나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男」으로 되어 있어 입소가 불가능하였다. A씨의 상황이 법률문제라고 판단한 담당자는 법률상담처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으로부터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다.

법률홈닥터는 담당자에게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리고, 등록부정정에 대한 설명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하였다. 이어서 법률홈닥터는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장애인·가정상담소 담당자는 성별감정서를 받기 위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별감정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가 준비되자 법률홈닥터는 담당자를 통해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달 후 법원으로부터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을 가지고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A씨의 등록부상 성별은 「男」에서 원래의 성별인 「女」로 정정되었다.

“여성보호시설에 입소했어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A씨는 여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인·가정상담소 담당자는 필요한 서류 작성과 준비까지 도운 법률홈닥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출생, 성별,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제도이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신청인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07 |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중재한 사례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A씨는 부인과 함께 1급 지체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이다. A씨는 아파트를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가 없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저당권 설정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 처리되었다. 임의경매 절차에서 B씨가 아파트를 매각받았다. 아파트를 매각 받은 B씨는 A씨에게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1급 지체아인 자녀를 두고 있어서 치료와 재화를 위하여 서울을 오고가고 있는 터라 B씨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B씨는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터라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는지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법률지식도 상당한 사람이었다. B씨는 만일 즉시 퇴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뜻과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는 새로 이사 갈 곳을 정하여 B씨에게 알려주었으나 B씨는 밀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아야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A씨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

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B씨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A씨는 크게 당황하였고 복지기관을 통해 법률홈닥터를 소개받아 법률홈닥터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법률홈닥터의 중재로 원만히 합의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다.

법률홈닥터는 A씨를 상담하고 B씨가 보낸 지급명령신청서를 검토하였다.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배당표확정일 이후의 임차인은 언제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보증금을 넘겨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표확정일 이후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고, 지급명령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A씨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

A씨의 이의신청을 받은 B씨는 크게 화를 내면서 A씨가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임차청구액 120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결정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B씨와 A씨 부인 간에 전화가 오고가면서 양측 간에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법원에서 있을 변론기일을 닷새 앞두고 법률홈닥터는 A씨와 B씨를 구청으로 불러 그들의 주장을 듣고 양측의 감정이 더 이상 상하지 않고 합의할 길을 모색하였다. 법률홈닥터는 B씨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A씨가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자녀들이 병원 치료와 재활을 받은 중이었으며 새 부동산을 구하여 이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배당표 확정일 이후의 점유상당의 부당이득을 재판절차를 통해 압박하는 것은 권리남용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재판장에 따라서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청구액인 120만원을 고집하지 말고 절충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률홈닥터는 합의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양측에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법률홈닥터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 A씨는 배당표확정일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점유한 대가로 B씨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4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법률홈닥터는 양측을 구청으로 불러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일 A씨는 B씨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법원으로 가서 A씨에 대한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취하하여 주었다.

이후 A씨는 새로 임차한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후 A씨는 법률홈닥터에게 전화하여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억울한 마음만 들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재판기일이 잡히고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법률관계를 적정히 설명해 주고 당사자와 직접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 이후 임차인의 점유가 부당이득이 되는 시기(=배당표확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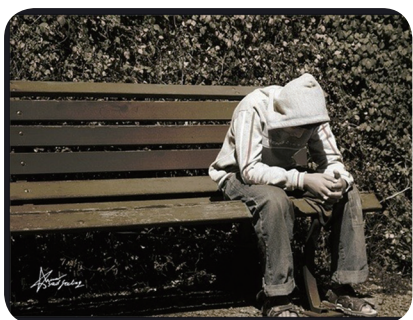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관한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나,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받은 셈이 되어 배당표 확정 후의 점유는 경락인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서울지방법원 1999. 1. 1. 선고 98나18178).

08 | 평생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다.

임차권등기명령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을 통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초수급가정을 도운 사례

“그냥 눈 딱 감고 이 한 목숨 끊어버리면 더 이상 구차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 텐데...”



법률홈닥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A씨로부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사연인즉, A씨는 전세보증금 2,000만원의 세입자로서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근처 임대아파트로 이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법률홈닥터로서는 A씨에게 법적으로 권리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구제절차까지 안내한 후 전화를 끊었는데, 이상하게 영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더니 법률홈닥터가 설명해준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혼잣말 하듯이 삶의 고달픔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울기까지 하였다.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의욕이 없는 A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법률홈닥터는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서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다하다.

법률홈닥터는 우선은 A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시로 안부전화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알고 보니, A씨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임대아파트로 이사 후 관리비 등 생활비 지출은 늘어난 데 반하여 그나마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한데다가, 딸은 혼전 임신까지 하여 시집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결혼식을 시킬 최소한의 돈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까지 결심하였던 중 법률홈닥터와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통화가 거듭될수록 A씨는 법률홈닥터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률홈닥터가 제안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하면 A씨의 목소리에서 웃음소리도 조금씩 들리게 되었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되찾기 위하여 법률홈닥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동시에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하여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A씨는 결국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전 재산이었던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되찾게 되었다. 또한, 법률홈닥터는 A씨와의 거듭된 전화통화 중 A씨의 딸이 실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상실로 인한 수급비 추가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법률홈닥터는 복지담당공무원을 연계하여 A씨에게 수급비가 추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남들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언정 본인한테는 정말 큰돈이라면서 펄 듯이 기뻐하였다.

“법률홈닥터라고요? 세상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A씨는 “법률홈닥터라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 이 세상에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니 이것은 돈으로도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며 거듭 감사를 표현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계적·수동적으로 법적 절차의 답만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환자가 정말 아픈 곳이 어디인지 살피는 주치의처럼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서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로서의 법률홈닥터 본연의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자유롭게 주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09 나는 동생의 보호자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어 보호가 필요한 여동생과 조카들을 지원하게 된 사례

“직장에서 일하던 동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A씨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여동생은 몇 년 전 남편을 잃었기에 어린 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A씨 역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여동생과 조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기에 언니로써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6개월 전 A씨는 조카들로부터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여동생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간 A씨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 여동생이 뇌출혈로 인해 의식불명상태가 된 것이었다.



다행히 몇 개월의 치료로 여동생은 의식을 찾았으나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병간호는 물론 조카들의 양육까지 누워있는 여동생을 대신해서 A씨가 모든 사무를 처리해야했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의 부담만으로 여동생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이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여동생의 계좌에서 병원비를 지불하려 하였으나 A씨는 직계 가

죽이 아니었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제약이 많았기에 불편함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조카들의 학교생활 등 친권자가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A씨는 지역의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나 A씨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비용이 들었기에 더더욱 고민은 깊어 갔다. 그러던 중 A씨는 이러한 고민을 평소 이용하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말하였고, 복지관에서 정기법률상담을 하는 법률홈닥터를 통해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절차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를 통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A씨와 복지관에서 만난 법률홈닥터는 A씨의 사연을 듣고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민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금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A씨가 병원에 있는 여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관리를 비롯한 신상보호까지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A씨가 성년후견인이 되면 여동생의 병원 입원, 퇴원 등의 수속은 물론 보험금 수령을 비롯한 재산관리를 하여 그 수익으로 여동생의 치료 및 요양비용과 조카들의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A씨는 자신이 여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하였고, 법률홈닥터는 A씨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정법원에 제출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사전현황설명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들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나 홀로 소송이었고 이러한 법률적 절차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었기에 A씨의 절차 진행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률홈닥터와 법원 주사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와 자료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제출하였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법원은 A씨를 여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여동생과 조카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된 A씨는 후견인으로서 여동생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이를 여동생의 치료비와 요양비뿐만 아니라 조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러한 사무 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후견인으로서 당연히 여동생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조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A씨는 지역에 활동하는 변호사가 적었기에 다른 지역까지 가야 했고, 비용 때문에 걱정이 컸기에 법률서비스는 문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법률홈닥터를 통해서 본인의 지역에서, 그리고 익숙하고 편한 곳인 복지관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절차진행에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게 되었다.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A씨는 또 다른 법률적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달라는 법률홈닥터의 말에 “서민의 법률주치의”의 든든함을 느꼈다.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가정법원(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들(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을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 이제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는 거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을 통한 기존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명의 변경 사례

“오갈 데 없는 소년이 당장 집을 비워주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미성년자인 A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서 기존전세임대주택에서 살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홀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존주택전세임대 관련 업무편람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A씨는 당장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임대주택 담당자는 A씨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A씨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률홈닥터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하였다.

조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도록 하다.

법률홈닥터는 관련 법령 검토 결과, 기존주택전세임대지침 및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편람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법률홈닥터는 읍사무소 사회복지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A씨가 퇴거조치를 당할 상황이며, 퇴거를 막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담당자와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요건 가운데 A씨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들을 추려내었다.

그 결과 조손가족 형태의 한부모가족이나, 모자가족 형태의 한부모가족 구성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담당자에게 조사 및 필요 조치 진행을 요청하였다.

며칠 후 법률홈닥터가 진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조부의 연락처를 수소문, 조부에게 연락하여 A씨의 양육 의사를 확인하였고, 최저생계비 · 조부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를 고려할 때

조손가족 형태의 한부모가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부로 하여금 주민등록 이전 및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법률홈닥터는 임대주택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A씨에 대한 한부모가족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선정되기 전까지 명의변경을 위한 유예기간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법률홈닥터는 사회복지팀 담당자에게 조부의 명의변경신청절차 진행 조력을 부탁하였다.

약 1개월 후 A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선정됨으로써 입주자 명의변경을 통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비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 혜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가장을 도울 수 있는 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법적 도움을 주는 변호사님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기존전세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게 되어 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를 당하게 된 소년가장 A씨. 법률홈닥터의 도움 덕분에 A씨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선정됨으로써 입주자 명의변경을 통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임대주택 담당자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부모가 사망하여 홀로 남겨진 소년소녀가장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법적 문제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을 느끼며, 차상

위계층 학비 보조까지 받으니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다는 A씨가 듬직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조부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바라본다.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계층을 말한다.

법정 차상위계층으로는 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② 차상위 자활 대상자, ③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④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가 있다.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양곡지원, 중고교생 학비 · 급식비 · 방과후수강권지원, 대학생 기화균형 선발제도 이용, 대학교 장학금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 전기 · 가스요금 할인, 문화 · 여행바우처 및 각종 정부제공 일자리 사업 등을(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의 비교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즉, 소득수준이 기존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더 높더라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11 빛 독촉, 전디기 힘들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신청, 면제재산결정신청을 도운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 진료비, 저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수술 도중 사망하였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오빠와 함께 아버지의 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진료비는 약 600만 원에 이르렀고, 오빠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A씨는 병원으로부터 진료비에 대한 지급 독촉을 내용증명으로 수령하였다. A씨는 수급비로 힘겹게 생활해 오고 있었고, 600만 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진료비를 감액 받을 방법이 없는지 상담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찾았다.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서비스 신청



A씨는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진료비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빛 독촉을 받아오고 있었다. 게다가 A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였고, 이에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개인파산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였다. A씨는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에 따라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살림살이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얼마 후, A씨는 다시 법률홈닥터를 찾았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인 상황에서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 신청을 하여 A씨의 살림살이에 압류가 집행되었던 것이다.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압류된 살림살이가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재산이었다. A씨는 법률홈닥터에게 파산신청을 하였음에도 압류가 되는 것인지 질의하였다.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파산신청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다만 압류된 살림살이가 A씨의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재산신청을 하고 동시에 강제집행 등 중지 · 금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된 살림살이의 매각절차의 속행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A씨는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면제재산 및 강제집행중지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제 빛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A씨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곧 면책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A씨는 힘겨웠던 빛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하였다. A씨는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직업도 찾아 다시 한 번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였다.

●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의 경우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고, 공고료 및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장애인 복지카드

● 면제재산신청 · 강제집행 등 중지신청이란?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자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또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는 면제재산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 등 중지명령신청을 하면 강제집행 등의 속행을 막을 수 있다.

12 | 빛이 너무 많아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채무조정에 도움을 준 사건

“감치재판이 뭔가요? 저 구속되는 건가요?”



A씨는,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탕진한 후, A씨의 사위가 A씨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A씨에게는 슬하에 딸이 한 명이 있었지만 딸도 생계가 어려워 A씨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A씨는 홀로 빈집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게다가 A씨는 최근 심장수술 후 일도 하지 못하여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지난 6월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명시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재판기일통지서를 받아 크게 불안한 통에 법률홈닥터 홍보물을 보고 법률홈닥터에게 상담 받고자 법률홈닥터를 방문하였다. 일단 법률홈닥터는 7월에 예정된 위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면 감치에 처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켰다. 의뢰인은 당장 감치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크게 겁을 먹었었으나, 법률홈닥터의 설명을 들은 후 이내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이후 의뢰인은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이 없음을 명시하였고 이 문제는 무사히 해결되었다.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다.

감치재판 문제가 해결된 이후 이루어진 A씨와의 상담 결과, 의뢰인이 심장수술로 인하여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빈집에 몰래 들어가 생활하는 등 일정한 주거가 없고 그마저도 마을 주민들에게 들켜 쫓겨 다니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희망복지지원계의 긴급주거지원 등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연계하였으며 이후에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한 달에 37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의뢰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채무 독촉으로 힘들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정확한 채무액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법률홈닥터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채권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정확한 채무액 및 연체일수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계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받고 최장 8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계할 당시, 거동이 불편하고 자신의 채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위해 안내문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의뢰인은 한 번의 방문으로 법률홈닥터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자 매우 고마워하였으며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건넸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 개인워크아웃이란?

과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 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자이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일단 자신의 부채를 파악하고 그 결과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이고 3개월 이상 연체되었으며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상담시간을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될 때까지 1달 반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되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는 이야기를 채권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며 채무조정이 신청되면 그 다음날부터 독촉이 정지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신용회복지원신청(위원회 양식)
- 독촉장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원

13 | 압류된 예금... 생계비는 찾을 수 있다!

압류범위변경을 통해,
압류된 예금을 풀어 생계비를 지켜준 사례

“하루 벌어 하루 살다가 막막해졌어요.”

A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생활비가 부족하고, 일용직 이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상이 반복되는 중이었다. 이번에도 며칠을 일한 급여가 모인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여 또 며칠을 생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통장에서 예금이 출금되지 않았고, 은행에 문의해보니 A씨가 갚지 못한 채무가 있어 예금이 압류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당장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비를 찾지 못하게 되자 막막하여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찾았다. 법률홈닥터는 A씨와 상담을 해본 결과 A씨는 다른 재산은 없고 당장 입금된 예금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임을 알고, A씨의 예금이 민사집행법상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예금을 되찾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1개월간 생계를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예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률홈닥터는 A씨의 예금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럼에도 압류가 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르면, A씨의 예금 같은 경우는 압류가 금지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별 예금 잔고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어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은 부득이 압류결정문이 송달되면 모든 예금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하였고 A씨와 같은 예금자의 지급요구가 있어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은행은 이렇게 압류한 예금이 법상 압류 금지된 것일지라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압류금지범위변경 결정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은행 입장에선 개인별 예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압류금지채권임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진 모든 예금을 압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법률홈닥터는 A씨를 도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압류법원에 제출토록 하였다.

“법률문제를 가까운 곳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생활비로 쓸 예금을 갑자기 압류 당했던 A씨는 당장 교통비도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게다가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제하는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은행 측의 안내를 듣고는 방법을 몰라 막막해했다. 법원에 내야 할 신청이 무엇인지, 신청을 위해선 필요한 서류 작성과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를 도통 몰라 고민했던 것이다. 막막해하던 A씨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며 만족함을 표현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찾게 되는 구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다. 이제 A씨는 자신의 생계비를 찾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심하게 되었다.

법률이 압류를 금지해놓으며 보장해준 생계비를 법적 절차를 몰라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A씨와 같은 분들이 손쉽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압류금지채권

》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물건 또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연금 관련법, 「형사보상법」,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권리들 중 일부도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월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법원의 명령에 의해 예금이 압류가 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를 통해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 줌으로써 예금주는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아래의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 | 사실혼관계배우자 사망 이후... 영구임대아파트 임차권 승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임차권 승계를 도운 사례

“30년을 살아도, 법률혼이 아니기에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다네요.”

남의 집안일을 도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의 A씨는 30년 전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남편의 아이 셋을 키웠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며 30년을 살았지만, 다행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해 왔기에, 주거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남편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A씨가 승계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A씨는 사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아파트 임차권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살 집



이 없어진다는 사실에 A씨는 좌절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시공사를 찾아가 30년간 사실혼을 유지해 왔고, 지금 나가면 살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여러 번 하였다. 딱한 사연을 들은 도시공사 직원이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는지 법률홈닥터에게 문의하였고, 이를 통해 A씨는 법률홈닥터와 만나게 되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다.

법률홈닥터가 A씨와 면접 상담을 하여, A씨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의 지위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로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법원에서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A씨는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니, 무섭기도 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 속상해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였지만,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라는 법률홈닥터의 말에 힘을 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드린 사진과 신부님의 확인증서가 있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주소지가 사망자의 주소지와 일치하고 있다는 등 사실혼관계의 증명을 위한 증거들을 모았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고 4달여의 기다림 끝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소송 기간 동안에는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관리 담당자에게 법적 상황을 설명하여,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명도를 유예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 받았다.

“이제 여생을 살 집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여생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집 걱정 없이 살게 된 A씨가 밝은 목소리로 법률홈닥터에게 전화를 하였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법률홈닥터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고, 법 근처에도 가본 적 없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장할 수도 없던 의뢰인에게 희망과 확신을 준 법률홈닥터에게 기쁨의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법적인 권리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힘들고 아픈 이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사실혼과 주택임차권의 승계



≫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의 혼인관계를 의미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법률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라는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이라고 한다.

≫ 주택임차권의 승계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사실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아, 이를 바탕으로 사실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의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사실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예 : 결혼사진, 가족사진, 주소지, 경제적 공동체 입증할 만한 내용).

다만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는 부첩관계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5 40년 전에 산 토지의 주인이 되고자 판결을 받았는데... 등기가 안된다고 하네요!

매도인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북한주민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았는데 등기가 불가능했던 의뢰인

노인복지관에서 처음 뵈 90대의 고령자 A씨는 확정판결이 있는데 등기가 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오셨다.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의뢰인은 얼마 전 본인의 집이 공용수용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뢰인이 집과 함께 보유한 토지 중 일부는 40여 년 전에 샀던 것인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의뢰인은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이미 1980년에 사망한 상태였고, 결국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나마도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전부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는 없었다. 매도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북한주민인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로 지정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상속인들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뢰인은 그 부분만이라도 등기를 하고자,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를 찾았다. 그런데 등기관은 각하처분을 내렸다. 등기소에서도 특이한 경우라고만 할 뿐 방법을 모른다고 했으며,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하소연을 해 오셨다.



상속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상속등기 절차

의뢰인의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관이 각하처분을 한 것은 사건 토지가 현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여전이 망인인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제3자인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상속등기를 해야 함을 알려드렸다. 그런데 이 경우 상속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의뢰인은 채권자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상속등기를 할 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등기정보가 없다는 점이었다. 주민번호는 등기신청서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나, 북한주민인 상속인들은 주민번호가 없었다.

북한주민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다.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을 경우, 1개월 내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제13조 제1항),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1개월 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 재산목록을 신고하면, 북한주민등록대장이 작성되고, 그에 따라 북한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게 되어(제21조 제3항), 그렇게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면, 그것을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로서 기재한 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재산관리인이 토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렸다.

법률홈닥터는 우선 의뢰인에게 북한주민재산관리인 선임청구서를 작성해 드렸고, 이후,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 상속인을 북한주민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후 법무부에 재산관리인 선임신고를 한 후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 정보를 통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근 10여 개월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의뢰인은 모두들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자식들까지도 그냥 포기하라고 했던 일을 물 한 잔 대접받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법률홈닥터에게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신 건넸다.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하고,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이 있으면서도 채무의 이행을 미루고자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해 대위 상속등기가 가능한데 이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라 한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채권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등기신청에는 등기신청정보 기재가 필수이므로, 상속인 중 북한주민이 있는 경우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 선임 후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한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 대위상속등기신청 소명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부동산(토지, 임야, 건축물)대장 등본
- 제적등본
-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확인서(법무부 통일법무과 발급) 추가
 - ※ 상속인 중 북한주민이 있는 경우

16 | 손자 명의로 휴대폰 요금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가출한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시켜 사용한 사건

“손자들 명의의 휴대폰 요금 체납 고지서를 보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80세의 A할머니는 두 손자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이다. 손자들의 부모는 약 7-8년 전에 자식들을 버리고 가출하여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 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할머니가 대신 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런데 오래 전 가출한 부모 중 1명이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것도 모자라서 몇 년 전 자녀들 몰래 3개의 통신사로부터 자녀들 명의로 수대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잠적해버려 얼마 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손자들 명의로 된 총 2백만 원 가량의 휴대폰요금 독촉 고지서가 집에 날아들었다.

두 손자 중 한명은 지적장애에 의한 수급자이고 자신도 고령으로 인해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휴대폰 요금 체납 통지서를 받아본 할머니는 어찌 할 바를 몰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현재 중학생인 둘째 손자는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도선수로 성실히 생활하며 학교대회에서 여러 번 상을 탄 유도 유망주인데 신용불량 낙인으로 인해 손자의 앞길에 흑여나 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동 주민센터, 관계 공무원 등을 찾아가 이를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였지만 모두들 부모가 개통 했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얘기할 뿐 특별히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보다 못한 동네 주민이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우연한 기회에 법률홈닥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화로 법률홈닥터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주었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내다.



부모는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로 휴대폰을 적법하게 개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설령 친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상대방에 대해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홈닥터로서도 전화상담 당시 내용증명을 보내보라고 한 것 외에는 속 시원한 답을 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억울한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동네 주민과의 전화 통화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다음날 할머니의 집을 직접 찾아가본 결과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진 지역이 손자들이 살고 있는 대전이 아닌 부산이었던 사실, 어떤 휴대폰은 요금납부자가 손자나 부모가 아닌 제 3자로 지정 되어 있었다는 사실, 개통당시 둘째 손자의 나이가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는데도 수대의 핸드폰이 짧은 기간 안에 개통되었다는 사실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신사들도 당시 이러한 수대의 휴대폰 개통이 손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었고, 충분히 소송을 통해 친권남용을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라 판단이 되었다. 설령 친권남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적정히 감액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마침 손자들 중 1명이 장애에 따른 수급자이며 할머니 또한 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친권남용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드린 후 구조공단에 이를 연계토록 하였다.

하지만 80세가 넘는 할머니가 상담직원에게 여러 사정을 들어 친권남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승소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고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구조신청이 기각될 경우도 생길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홈닥터는 일전에 전화

로 제보해준 동네 주민의 협조로 작성된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할머니와 같이 동행해서 상담 직원 분에게 사건 경위 및 친권남용 적용 가능성을 설명한 결과, 아무 걸림돌 없이 일사천리로 무료 소송구조가 결정되었다.

또한 친권남용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소 제기와 더불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둘째 손자의 소송 진행을 위해 부모들의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또한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할머니 집으로 지급명령이 날아와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할머니에게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날아온다면 꼭 법률홈닥터에게 연락 줄 것을 당부 드린 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난 이제 여한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할미가 재판을 하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고맙지.”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이곳저곳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 봐도 모두 안 된다는 답변만 들어서 너무 답답했고 반 포기상태였는데 이렇게 무료로 소송을 해 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웃주민, 공단 직원, 법률홈닥터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시하셨다. 오히려 소송결과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법률홈닥터에게 이렇게 자신의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을 정식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여한은 없다면서 소송결과는 좋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며 환한 웃음으로 위로해 주셨다.

●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제도



》 친권상실이란?

자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친권을 남용한 부모에 대하여,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친권상실의 사유로는 ▷부 또는 모의 친권남용이 있을 때(자녀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행하는 경우 등)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자신만을 위한 방탕한 생활, 상습도박 등)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행방불명,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구치소 복역 등)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 재(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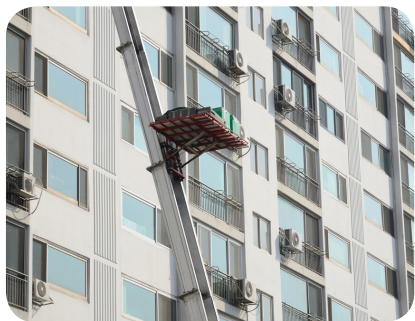
》 미성년 후견인 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인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데, 이를 미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한다.

17 | 집이 안 팔려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요?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

“집주인이 먼저 집을 팔 거라며 미리 이사 갈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니...”



한부모가정의 어머니 A씨는 임차한 집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대차 종료일까지는 아직 3달 정도 남은 상태였지만 집주인의 아들이며 실소유주라는 남성으로부터 곧 집을 매도할 예정이니 미리 이사 갈 집을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갑작스러웠지만 그동안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웠기에 급하게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

행스럽게 월세도 저렴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임대차 종료일에 맞추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며칠 뒤 실소유주에게 새로 이사 갈 집을 정했으니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실소유주는 집이 팔려야 A씨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으며, 만약 임대차 종료일까지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갑작스러운 말에 놀란 A씨는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미 새로 이사 갈 집 계약까지 마친 상태라고 사정을 설명하였지만, 실소유주는 막무가내로 자신은 알바 아니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에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임대차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손해 보더라도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법률홈닥터가 시청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법률홈닥터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다.

임대인과 실소유주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다.

A씨와 전화 상담을 통하여 법률홈닥터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임대차종료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하여 등기한 후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하지만 아직 임대차종료일이 두 달여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임대인의 아들이라는 실소유주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임대차종료일에 아파트가 매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법률홈닥터는 A씨로부터 그동안 A씨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보증금 이야기만 꺼내면 오히려 화를 냈던 실소유주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은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달 후 임대차종료일에 A씨는 실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아 아이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었다.

“너무 막막했는데 법률홈닥터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A씨는 임대차종료일에 실소유주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계약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높은 월세를 지급하며 계속 생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새로 이사 갈 곳의 보증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정말 막막하기만 하였다.

매일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A씨는 법률홈닥터가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하여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편에서 진심 어리게 걱정해주는 법률홈닥터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까지 잘 마친 A씨는 법률홈닥터에게 먼저 연락하여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하였다.

● 내용증명 제도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에 기재된 사항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 내용증명의 기능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민사소송 시 법원에 제출되면 증거로서 효력을 지닌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받는 사람 주소와 보내는 사람 주소를 모두 기재하고, 통보하고자 하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뒤에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3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한다.

18 | 미혼부의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갖기까지

미혼부 자녀의 친자 등록을 통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아이를 홀로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2013. 초 A씨는 자신에게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잠시 동거했던 여성인 B씨가 A씨의 집으로 찾아와 A씨의 아이라며 C를 맡기고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남자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아 고민을 했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리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런데 A씨의 이러한 다짐을 흔들리게 한 것은 A씨 부모님의 반대나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었다. 관할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러 간 A씨는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아이의 어머니만이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준비하여 구청에 재차 방문하였으나, 같은 대답을 들을 뿐이었다.



A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을 답답해하는 동안 아이는 A씨의 정성으로 계속 커갔지만 A씨는 이를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어떤 보육시설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

이를 맡아주지 않아 A씨는 다니던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는 것도 A씨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출생신고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의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는 주변의 조언으로 구청의 복지사와 상담을 하였다. A씨에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이의 출생신고라고 판단한 담당자는 미혼부의 출생신고 방법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법률홈닥터에게 문의하였다.

법률홈닥터는 먼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여야 함을 안내하였다.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가 연락두절이 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친부가 모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는 출생신고가 가능한 적도 있으나, 2011. 6.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선례가 변경되면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없이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미혼부가 단독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할 수 없으나,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아이를 A씨의 친자로 기재하는 등 출생신고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절차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을 받다.

법률홈닥터는 2014. 초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A씨의 아이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의 절차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공단에서 위 절차의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말을 들었고, 위 절차의 결정 기간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거의 반포기 상태였다. 약 2년 동안 A씨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차라리 아이를 버리면 국가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신해주니 아이를 잠시나마 유기하라’는 등의 부정적인 조언만을 들어왔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절차에 긍정적인 확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법률홈닥터는 C와 같이 출생신고가 반려되었던 아이가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된 동일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렸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절차를 믿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확신을 드렸다. 또한 A씨를 대신하여 공단의 담당자에게 현재의 절차 진행 상황을 문의해 안내해드리며, 수개월째 소식이 없어 답답했다는 A씨에게 단순히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외에도 성본 창설 허가, 특별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원하는 것보다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드렸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힘들어하는 A씨의 사연을 잘 알고 있는 법률홈닥터는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담당 공무원 명의로 A씨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적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A씨의 사연이 공중파 방송으로 방영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A씨의 예상보다 빠른 2014. 8.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A씨는 혼자서도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훌쩍 큰 아이와 함께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고를 하러 구청에 방문하였다. A씨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아이가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고,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다며, 유사한 사례의 다른 아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하셨다.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는 A씨의 뒷모습을 보며,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겨운 싸움에서 이긴 아버지, 그리고 긴급 생계비 등의 지원을 통해 그런 아버지를 지지해주고 신속하게 한부모가정 신청에 도움을 준 구청 담당자들의 따뜻한 배려가, A씨와 같은 사연으로 아직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A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드렸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 창설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서 성본 창설 허가과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필요로 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을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성장환경진술서
- 성장과정을 증명하는 인우증명서 등
- 성본 창설 허가 심판 등본
- 그 밖에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9 12년 만에 물품대금 독촉에서 벗어나다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난 사례

“사지도 않은 물건 값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어요.”

A씨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2002년에 구입한 건강식품 대금 1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밤낮으로 전화를 받으며 당장 위 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하라는 독촉에 시달렸고,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들으며 불안해하였다.

A씨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보아도 건강식품을 구매한 적이 없었던 것 같지만 자신이 1백만 원을 지불해야만 더 이상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거동이 불편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A씨는 1백만 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혼자살고 있는 집으로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찾아올 것 같아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웃으로부터 법률홈닥터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라는 조언을 듣고 법률홈닥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불법채권추심,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설명하다.

A씨와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법률홈닥터는 불안해하는 A씨에게, 협박을 가하여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 안심시켰다. 또한 설령 A씨에게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채권추심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안내하고 내용증명 작성을 도왔다.

“이제 맘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A씨는 법률홈닥터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기뻐하였다. 그 후 채권추심회사가 다시 독촉전화를 하자 A씨는 법률홈닥터와 상담한대로 대응을 하였고 내용증명우편도 발송하였다. 이로써 독촉전화에 시달리며 불안해하던 A씨의 어려움이 해결되었고 A씨는 법률홈닥터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 단기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단기소멸시효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0 | 갚아도 늘어나기만 하는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채무자를 도운 사례

“그동안 계속해서 사채 빚을 갚아왔는데 원금은 갚지도 못했고
그나마 있던 집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A씨는 6~7년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 정도의 사채를 빌리면서 연 1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로 인해 A씨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억 원 정도를 변제하였음에도 원금은 거의 변제하지도 못하였고 연체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며 빚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었다. 또한 A씨는 사채업자의 요구로 2012년에는 채권최고액을 9천만 원으로 하여 A씨의 주택에 근저당권도 설정해주었다. A씨는 지금까지 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하고도 연 120%라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A씨는 남편은 물론이고 자녀들과도 불화가 생겼고 이는 가족들 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A씨는 법원으로부터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여 원금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집까지 경매로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방문하였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채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법률홈닥터는 A씨의 상담을 통해 「이자제한법」에 따라 사채업자는 연 30% 이상의 이자를 초과해서는 받지 못함을 안내하고 그동안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원금에 자동충당 됨을 안내하였다. A씨가 지금까지 변제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우선 A씨는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의경매를 정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원금에 충당되고도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사채업자는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채업자를 위 규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아가 A씨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이므로, A씨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금전차용 관련서류(차용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부약정서 등), 변제관련 서류(영수증, 송금증 등), 피해소명서류(공소장, 판결문 등) 등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법률구조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설명하였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법률홈닥터는 몇 차례에 걸친 A씨와의 상담을 통해 그동안 「이자제한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채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심지어는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A씨를 사채업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법률홈닥터에게 오래 전의 채무로 인해 A씨는 물론이고 가족들 역시 힘들게 지냈는데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더불어 법률홈닥터라는 제도는 서민들에게는 한줄기 빛 같은 존재라며 더욱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이란?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 한도를 정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7. 6. 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사인간의 일반 금전거래나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만 적용되며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연 34.9%)이 적용된다.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2014. 1. 14.자로 개정되고 2014. 7. 15.자로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25%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4. 7. 15. 이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최고 이자율은 연 30%가 된다. 2014. 7. 15.부터는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넘은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채권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1

경매로 넘어간 집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 지키기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요구신청을 도운 사례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대의 A씨는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홀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A씨는,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법원에서 서류를 주고 갔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법률홈닥터를 찾아왔다. 집주인에게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혹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법률홈닥터를 찾아온 것이었다.



법원에 연락하여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다.

법률홈닥터가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확인해본 결과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에 관한 서류였고,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 배당요구종기일이 하루 지난 상황이었다. A씨는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고,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도 했기 때문에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임대보증금 중에서 일정한

보증금은 다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워낙 오래되고 낡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였다. 건물에 얽힌 이해관계인이 많고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를 받아줄지 걱정되었지만 우선 법원 담당 경매계로 연락해서 연기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경매 담당자가 사건번호로 조회를 해보니 건물 소유자가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 A씨도 연기신청서를 제출해보라고 안내해주었다. 다행히도 배당요구종기일이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바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 경매계로 가시라고 말씀드렸다.

배당요구종기 연기와 함께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A씨는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아 최우선변제 대상인 보증금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배당순위에 따라 받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므로 그동안 영구 임대아파트 등 이사할 곳을 알아보도록 안내해드렸다.

“법률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A씨는 배운 게 없어서 법원에서 온 서류를 처음 받자마자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막연히 집주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률홈닥터의 상담을 받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법률홈닥터에게 고마움을 전해 왔다.

●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신청



》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선순위 권리자 포함)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소액보증금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전입신고와 인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 경매담당에 문의 또는 접수한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일자가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등본

22 | 세상에 혼자 남겨진 초등학생과 그 외할아버지

미성년후견인변경심판청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구조금제도

“이 어린아이를 두고 엄마 아빠가 다 죽었으니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죠?”

A양은 초등학생이다. A양의 아버지는 이복오빠에게 살해당하였고, 그로부터 3달 후 어머니는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사망했다.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어린 A양은 외할아버지 B씨와 함께 보증금 800만원, 월세 20만원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외할아버지 B씨는 과거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쳐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만을 가지고 A양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A양은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학업성적도 상위권이었다. 외할아버지 B씨 또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외손녀 A양의 꿈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학업성적 유지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외할아버지와 외손녀는 서로 의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외할아버지 B씨는 A양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계속하여 A양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A양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다. A양의 미래를 위한 통장개설 조차 A양을 양육하는 외할아버지 씨가 할 수 없었다. 부모 사망 당시 법에 의해 A양의 친할머니가 자동적으로

A양의 법정대리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A양은 친할머니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당연히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다.

생각하지 못했던 지원들 : 미성년후견인변경심판청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구청 통합사례관리팀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빠져 있던 A양과 B씨를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하던 도중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법률홈닥터가 A양과 B씨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A양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 A양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하는 방안 그리고 A양의 후견인을 친할머니에서 외할아버지이자 현재 양육하고 있는 B씨로 변경하는 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률홈닥터가 이러한 지원 제도들을 A양과 B씨에게 안내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인 A양과 고령인 B씨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법률홈닥터는 그들을 도와 서류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청 등 관련기관을 함께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였다.

의뢰인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받아 현재까지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인변경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외할아버지 B씨가 드디어 A양의 법정대리인이 되었다. 또한 범죄 피해로 인한 아버지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여 지급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훗날 A양의 수년치 대학등록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구청에 법률홈닥터 변호사님이 계시니 든든합니다.”



“나 혼자 외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위에서는 시설에 보내라고도 했지만,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내가 키워야지. 근데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유족구조금제도 알게 되어 지원을 받다니...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외손녀가 대학등록금 걱정은 한시름 놓았네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호사님 덕분에 애의 법정대리인이 되었으니 더 잘 키워야겠네요.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집에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구청에 변호사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법률홈닥터는 처음 어린 A양을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 도움을 주려는 낯선 사람들을 대하기 몹시 어려워하는 모습. 그러나 법률홈닥터와의 수차례 상담과 절차 진행을 통해 이제는 제법 법률홈닥터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먼저 이야기하는 등 어린 A양의 변화하는 그 모습이 법률홈닥터에게 보람 그 이상을 주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백점을 곧잘 맞는다는 외할아버지의 자랑어린 안부 전화는 법률홈닥터가 오늘도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 미성년후견인변경심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판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판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301),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표번호 1577-1295)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검찰청 단위별로 설치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등 기타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방화, 강도 등 기타 중요한 개인적 법익 침해로 인한 피해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이다.

문의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표번호 1577-1295)

23 |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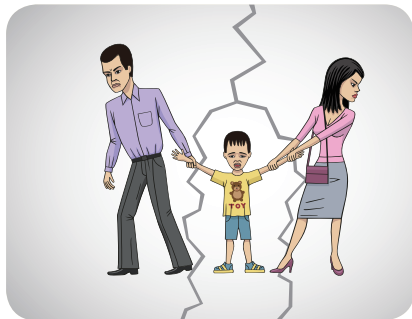
한부모가족 여성 가장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이전에도 법률상담을 받아 보았지만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한부모가족 여성 가장인 A씨는 종종 들르곤 하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 게시된 법률상담터 상담신청서를 보고 법률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다. A씨는 2000년도에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전 남편이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아이들을 데려 갔다. 그런데 전 남편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자 A씨는 1년 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 전 남편은 A씨가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 되었을 때 전 남편이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여 딸이 아버지에게 갔다가 A씨에게 돌아왔다. 그 후로 전 남편은 6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축구를 하러 해외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 친권행사자인 아버지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기회를 놓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긴 A씨는 아이들을 위하여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법률상담터에게 문의하였다.

A씨는 이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양육권 및 양육



비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진행한 결과, 실질적으로 A씨가 아이들을 양육해왔고 아이들도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씨는 한부모가족 여성 가장으로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시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A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여, A씨가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 나아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는데도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 드렸다.

법률상담터와 상담을 한 후 용기를 얻어 절차를 진행하다.

A씨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A씨로부터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관련한 상담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친권자인 전 남편이 협조해주지 않아 자녀가 해외에 나가지 못했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여 A씨는 법률상담터에게 진술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법률상담터는 진술서 작성에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 본인진술서 및 제3자의 진술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안내해 드렸다.

그 후 3개월 쯤 지나서 A씨는 다시 법률상담터에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받게 되어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구하고 과거 및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심판 청구서를 송달받게 되자 전 남편은 A씨에게 전화하여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하였다.



전 남편은 현재 채무가 많으며 월 급여가 적어서 양육비 관련 판결이 있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였다. 전 남편은 A씨의 청구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A씨는 전 남편의 부탁대로 심판 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더 나은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A씨는 중3, 고2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궁금해 하였다.

법률홈닥터는 전 남편이 제시하는 양육비는 서울 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다. 한편 전 남편의 요청에 의하여 절차를 중단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확보하려면 전 남편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놓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 남편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양육비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전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뢰인의 청구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또한 말씀 드렸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 일로 마음 졸이지 않게 되었어요.”

3개월 후 쯤 A씨의 소송 결과가 궁금하여 확인 전화를 드려보니 지난 12월에 판결이 선고되어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A씨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원래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하나 전 남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매월 일정 금액 지급받기로 합의가 되었다고도 하였다. A씨는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망설였는데, 이번 법률홈닥터와의 상담을 통하여 예상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송구조를 통하여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같은 내용의 상담이 반복되더라도 의뢰인이 실질적인 법률상 권리 실현에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적재적소에서 의문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다.

● 친권 및 양육권



≫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의 내용으로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법정대리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이 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된다.

≫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절차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양육권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24 | 빛 독촉, 채무조정, 그리고 새 출발!

양육비채권을 둘러싼 분쟁을 채무조정을 통하여 해결한 사건

“이곳저곳을 다 다녀 봤지만 저를 도와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인 A씨는 전 남편인 B씨와 자녀 둘을 낳고 살던 중,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혼 시 결정된 사항은 양육권자를 전 남편 B씨로 하고,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산 하나 없던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B씨는 양육비채권을 변제받고자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A씨는 집안의 모든 집기류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

다.

하지만 본래 재산이 없던 A씨였기에 여전히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업체에게 추심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A씨는 추심업체로부터 계속하여 채무독촉을 받으며 언제 또 압류가 실행될지, 자신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기재(신용불량자)가 언제 풀릴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없는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리저리 조력을 받을 만한 곳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었지만, 채무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해결 방안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추심업체로부터 채무조정에 관한 제안서가 송부되었고, 간절히 자신의 신

용이 회복되길 바라던 A씨는 친지 등에게 부탁이라도 해서 그 돈을 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막상 조정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니 불안스럽고, 의심쩍어 발을 내딛을 수 없었다. 그러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법률홈닥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침부터 법률홈닥터를 찾아 오게 되었다.

법률홈닥터와 함께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다.

우선 법률홈닥터는 추심업체의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1. 해당 법인의 정식 문서가 맞는지 여부
1. 해당 법인이 채무를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추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채권자채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추심권한, 즉 독촉을 하고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1. 만약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를 제안하는 것인지

이에 추심업체측의 담당자는 자신들에게는 추심권한 밖에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채무조정을 위해서 B씨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후 법률홈닥터는 채권자인 B씨가 채무조정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B씨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1. 추심업체에게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
1. B씨 본인에게 채무조정의 의사가 있는지
1. 채무조정의 의사가 있다면 추심업체를 통하여 이를 진행해도 되는지

B씨는 법률홈닥터에게 위 각 사항에 관한 문자를 보냈으며(추후 증거자료로 사용됨), 이를 확인한 법률홈닥터는 추심업체에 대하여 채무조정액에 관한 정확한 서면을 남기기 위하여 ‘완불예정확인서 또는 채무변제예정서’ 양식을 요청하였고, 이를 팩스로 송부 받고 A씨에게 ‘지정된 계좌에 조



정액을 계좌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할 경우 그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계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A씨는 어렵게 돈을 구하여 이를 추심업체에게 송금하였고, 법률홈닥터는 곧바로 추심업체에게 연락을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완불증명서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팩스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A씨에게, 후에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므로 완불증명서와 다른 서류, 문자내역 등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며 완불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신용불량자로서의 모든 신용제한... “자금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A씨는 다시 한 번 법률홈닥터를 찾아 왔다. 혹시나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 법률홈닥터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물었으나, A씨는 웃으면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빼내었다. 신용카드. 오늘은 A씨에게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시 신용카드가 발급된 날이었다. “해결 안 될 줄 알았던 일이 변호사님 덕분에 두 달 여 만에 깔끔하고 완벽하게 법적 해결이 되었고 저의 모든 신용이 회복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홈닥터는 이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앞으로 다시는 법률상담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 행복하게 살아가시라는 말을 남겼다.

●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채무관계를 종결짓고 싶은 경우, 전액을 변제하는 등 채권의 만족을 주는 방법과 파산, 회생, 개인 워크아웃제 등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 받는 방법이 있다. 만약 채무액이 현재 본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다 갚지 못할 정도인 경우이지만 파산, 회생에 이를 정도는 되지 않고, 또한 금융채무가 아닌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채무의 조정일 것이다.

채무조정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조정은 주로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여 잔존 채무에 대하여만 변제하고 채권관계를 종결짓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채무 일부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른바 부실채권, 즉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기 곤란한 채권들, 아니면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기 어려운 채권들의 경우,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위임하게 되는데, 신용정보회사 등은 주로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아 변제의 독촉, 변제의 수령, 집행절차의 진행 등을 행하고 있을 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위 사안과 같은 채무조정에 있어서는 채무액에 관한 합의가 중요하며, 훗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채무액이 얼마인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필요할 것이므로 완불예정서 등을 사전에 교부받아 이를 확정하고, 그 후 변제(증거가 남을 수 있는 계좌이체 등이 바람직함)를 한 뒤, 완불확인서 또는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교부받아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명서 자체가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 진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5 |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다

내용증명을 통해 여성 독거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

“여름엔 비가 새고 겨울엔 얼음장 같은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거동이 불편한 80대의 할머니 A씨는 홀로 작은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A씨가 살고 있는 집은 위낙 열악하여 여름엔 비가 많이 오면 방바닥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겨울엔 보일러 난방이 되지 않아 구청의 지원으로 전기장판과 난로를 사용하며 추위를 견뎌내었다. A씨는 하루 빨리 살고 있는 집을 벗어나 난방시설이 되어있는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였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다며 구청 사회복지과 사례관리사를 통해 법률홈닥터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법률홈닥터는 구청 사례관리사와 함께 가정 방문상담에 동행하였다.

임대차계약을 검토하고 계약해지 사실을 확인하다

A씨와 집주인은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였다. 2차, 3차, 마지막으로 4차 계약이 만료되기 직전과 그 이후에도 A씨는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법률홈닥터는 상담 결과 A씨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의사 없음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임을 설명하였다. 다만 갱신 이후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3개월 후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됨을 설명하였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 작성을 돕다.

그러나 A씨는 집주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만남을 피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하였다.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발송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률홈닥터는 A씨를 도와 그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담당 사례관리사에게 전송하였다. 법률홈닥터로부터 내용증명서를 전송받은 사례관리사가 A씨와 우체국에 동행하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은 즉시 A씨를 방문하여 살갑게 다가왔다.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깨달라며 7월 말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씨는 인근 노인복지관의 도움으로 전세 1100만 원짜리 집을 계약하였고 휴먼서비스센터로부터 이사서비스를 연계 받아 이사를 완료하였다. A씨는 드디어 비가 새고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



● 내용증명(출처 : 인터넷 우체국)



>>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이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완전하다.

>> 인터넷 내용증명의 특징

-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다.
- 편지병합(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편리하다.

26 | 카드 대금 연체 독촉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공정추심법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적인 채무독촉에서 벗어난 사례

“불안에 떨지 않고 하루라도 편하게 잠들고 싶어요.”

A씨는,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본인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



카드대금 연체 이후 카드 회사에서는 하루에도 열 번 이상 전화를 하는가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받을 때까지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전화나 문자를 계속하여 보내, A씨는 편하게 잠조차 잘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또한 얼마 전에는 카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직원이 방문할 것이니 협의하라는 식으로 통보하고선 회사 직원이 나와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등 A씨를 압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감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해서 독촉을 해대고, 심지어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 무작정 직원이 방문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행태가 너무 불쾌하고 견디기 힘들어, 법적으로 이러한 독촉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찾았다고 하였다.

“채권추심업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법률홈닥터가 확인해 본 결과 법령상으로 하루 3회를 초과하여 채무 독촉 전화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직접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며,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독촉 전화를 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다시 독촉 전화가 오면 이러한 법령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음을 보이고, 만약 법령에 어긋나는 독촉이 이루어질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미리 고지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대금을 끝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압류 및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한 물음에는, 동산 압류 이후에는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동산을 처분하게 됨을 설명하고, 다만 압류금지가 되는 동산으로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가재도구 등이 있고 이러한 금지 품목의 범위가 넓어져서 냉장고 등에 대해서도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A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동산은 모든 것이 생활유지품목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압류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홈닥터의 말에 A씨는 상담을 시작할 때보다 훨씬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카드 회사의 독촉에 대해 법률홈닥터가 권고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자리를 떴다.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하여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A씨가 카드회사에게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자 확실히 한밤중이나 새벽에 전화나 문자가 오는 일이 없어지고, 예전에 비해 훨씬 독촉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하면서 A씨는 법률홈닥터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4.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한 내용으로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해놓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150만원)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의 압류를 제한
2.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라도 연체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를 제한
3.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행 장소에 임산부, 중증환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심신박약자 등의 노약자가 연체채무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이들 노약자들이 압류과정에서 심리적 쇼크를 받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여야 함

27 생계유지가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기초수급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운 사례

“저는 저를 돌봐줄 자식도 없고, 사회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세의 고령인 A씨는 노령이어서 경제활동이 어렵고, 재산도 전혀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A씨는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고,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자녀B씨가 있지만, 자녀라고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A씨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A씨는 아이를 바랐지만 배우자와의 사이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 그러던 중 A씨의 처남이 그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B씨를 낳았는데, B씨의 친어머니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B씨가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하였고, 얼마 후 처남도 사망하게 되어 B씨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에 아이를 바라던 A씨는 B씨를 친아들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양육하게 된 것이다.

B씨는 어린 시절부터 A씨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A씨를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부양해왔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B씨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A씨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던 A씨를 시청 사례관리사가 발견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드리려

고 했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법적인 자녀 B씨가 존재하여 선정이 어려웠다. 이에 A씨의 사례관리사는 법률홈닥터를 찾아왔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다.

법률홈닥터는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는 친자가 아니고, 허위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파악한 후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하였다. B씨 또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에 동의하여 입증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진행에 협조하였다. 법률홈닥터는 A씨가 노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장 작성을 도와드리고, 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A씨는 법률홈닥터와 사례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무사히 접수할 수 있었다.

A씨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에 법률홈닥터와 사례관리사는 A씨가 빠른 시일 내에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서류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양곡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시청 무한돌봄센터의 연계로 밑반찬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도 지원받게 되었다.

“더 이상 생계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얼마 후 A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았고,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법률홈닥터와 사례관리사 선생님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감사 인사는 꼭 직접 전하고 싶었다. 생계 걱정으로 막막했는데 이제는 숨통이 트인다.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해주어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A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란 특정인들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 즉 부모자식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구이다. 구체적으로는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가 있고, 이 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 본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였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임에도 친생자의 추정 미치지 않는 경우(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생한 자, 형식적으로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나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양친자 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에서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줄 증거가 필요하다. 유전자 검사결과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하나,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 소장(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양식 다운로드)
-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친생자관계의 존재/부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유전자 검사결과 등)

28 |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의 빛

이혼, 대포차, 채무조정, 임대아파트 입주 등 의뢰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 사례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 법률홈닥터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50대의 여성 A씨는 10여 년 전 집을 나간 남편으로 인해 큰 빚을 져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다.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정신보건센터 직원으로부터 법률홈닥터를 소개 받고 찾아온 A씨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스무 살이라는 어린나이에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삼남매를 두었으나, 남편의 폭력, 외도,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 받았으며, 남편이 집을 나가 사라진 후에도 그로 인해 얻게 된 빚을 갚느라, 세 자녀를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였다. 평생을 허드렛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으나 이제 와서 A씨에게 남은 것은 점점 불어나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빚과 그간의 힘들었던 삶으로 인해 얻게 된 몸과 마음의 병뿐이었다.

자녀들은 장성하였으나 지적장애 3급인 딸은 최근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혼을 하였으며, 두 아들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A씨는 여전히 자식들



걱정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법률상담터는 A씨와의 면담 끝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남편과의 재판상 이혼을 돕다.

A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 되었고, 상담 당시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장만 잘 쓴다면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상담터는 A씨로부터 사연을 자세히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 작성을 도왔다. A씨는 법률상담터의 안내에 따라 직접 소장을 접수하고 공시송달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가량이 지나서 재판상 이혼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다.



오랫동안 A씨를 괴롭혔던 남편과의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되었지만, A씨에게는 많은 빚이 남아 있었고, 당장에 머무를 집조차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 이에 법률상담터는 A씨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계하여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도 고려해 보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본인 능력껏 채무를 변제하고 싶다는 A씨의 의견을 존중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안내한 것이다. 그 결과 매월 8만원씩 8년간 나눠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연계를 하였는데, 담당자와의 상담과정에서 남편이 가져간 A씨 명의로 된 2000cc 이상의 승용차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차로 인해 복지지원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법률상담터가 확인해 본 결과 위 승용차는 출고 된지 11년 이상이 되어 사실상 멸실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멸실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복지서비스 지원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A씨는 처음 법률상담터를 찾아 왔을 때 상담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법률상담터는 A씨의 사연이 너무도 안타까웠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은데 A씨가 삶의 의욕을 잃은 모습에 혹여 나쁜 선택이라도 할까 우려가 되었다. 법률상담터는 6개월여에 걸쳐 A씨가 처한 다양한 법적·경제적 문제 해결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A씨의 건강도 차차 회복 되어 갔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터를 찾아 왔을 때 A씨는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가 더 이상 울지 않게 되길 바란다.



● 자동차 멸실 인정 말소 등록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 하는 제도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 멸실 인정 대상 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 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점검 사실 등의 운행사실, 의무보험 가입 사실 및 검사 과태료가 없어야 하며, 모든 압류·저당·가처분이 없어야 말소등록 가능

≫ 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 멸실인정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멸실증명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멸실말소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멸실인정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29 딸이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북한이탈주민자녀의 가족관계등록을 도운 사례

“딸과 함께 살고 싶어요.”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인 남성을 만나 B씨를 출산하였다. B씨는 모친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으며, A씨와 B씨는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B씨는 중국국적으로 3개월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것이어서 3개월 후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법률홈닥터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법률홈닥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인우보증서 형식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출생신고를 마쳤다.

법률홈닥터는 「국적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어머니인 A씨가 한국국적이므로 B씨는 출생 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알려드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B씨는 위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법률홈닥터는 호적선례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A씨가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 B씨를 출산하였으므로, 출생신고를 통해 B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안내하였다.

A씨는 중국인남성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기에, B씨의 출생증명서로 출생신고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법률홈닥터는 자녀의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친족이나 친구, 이웃 등 보증인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인우보증서)를 통한 출생신고의 진행을 안내하였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렵게 다시 만난 딸과 헤어지게 될까 걱정이었던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 및 의료보험등록을 마친 후, 자녀와 함께 법률홈닥터를 찾아와 감사인사를 하였다. 여러 어려움을 딛고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A씨와 B씨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적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출생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역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북한이탈주민이 모(母)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어머니인 경우에는 외국인인 부와 법률혼관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와 모자 관계가 인정되므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만으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을 마칠 수 있다. 다만, 1998. 6. 14. 「국적법」 개정 전인 1998. 6. 13.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신고만으로 한국인이 될 수 없고, 국적취득을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국어 번역문도 첨부해야 함), 자녀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그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주무관청에 보증인 2명과 동행하여 출생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동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들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여기에서 자녀의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함은 “자녀가 북한이탈주민을 모로, 외국인 남성을 부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성년여부나 국적여부는 상관이 없으나 적어도 자녀보다 연소한 사람이거나 동년배는 아니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이 부(父)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아버지로 둔 혼인 중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지만, 혼인 외의자인 경우에는 인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부자관계가 인정된다. 이 경우, 부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다음 「국적법」 제3조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국적법」 제7조에 의한 특별귀화절차(자가 성년자인 경우)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고 법무부장관이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국적취득통보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필요한 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30 | 저희 아이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싶어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도운 사례

“첫째는 친모 미상, 둘째 셋째는 전남편의 성(姓)을 따르고 있어 아이들이 자랄 수록 혼란스러워 할까봐 걱정입니다.”



A씨는 어린나이에 B씨와 혼인 하였다. 그러나 B씨는 PC게임에 중독되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임하였다. 이로 인해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결국 가출을 결심하였다. 이 후 A씨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현재의 남편인 C씨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A씨는 첫째아이를 출산했는데 당시 전남편인 B씨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첫째아이의 출생신고를 친모를

미상으로 한 채 증인을 세워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였다(첫째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미상으로 됨). 그러나 둘째, 셋째가 태어났을 때는 출생신고 시 전남편인 B씨를 친부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였다(성과 본이 전남편인 B씨를 따르게 되어, 다른 자매들과 성과 본이 다름).

이후 A씨는 전남편 B씨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현재 남편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 사이에 태어난 넷째는 혼인신고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 후 다섯째가 태어났고, A씨는 상담 당시 여섯째를 임신 중이었다. A씨는 첫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가 미상으로 되어

있고, 둘째와 셋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성과 본이 전남편을 따르고 있는 것이 언제나 마음에 걸렸다. A씨는 아이들이 더 자라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를 고쳐주고 싶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 받기는 어려웠다.

“법률홈닥터를 만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법률홈닥터는 경찰서를 통해 처음 A씨의 가정 문제를 듣게 되었고, 이후 A씨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환경을 파악하며 A씨의 필요를 들으며 상담을 진행했다. A씨와 C씨 가정은 몇 년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이후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차상위로 아이들 의료비 지원만 받고 있었다. 이들의 경제적 주 수입은 신용불량자인 C씨가 일용직 근무를 통해 받아오는 급여가 전부이나, 이마저도 한 달에 10일 밖에 일하지 않아 일급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고,

A씨는 출산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학교 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월 30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특히 상담 당시 임신 중이던 A씨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주거는 보증금 1백만 원에 월세 13만원이었는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보증금이 14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주거 환경도 벽지와 장판은 오래 되어 곰팡이와 함께 낡아보였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오래된 단층의 다세대 주택이었다.

법률홈닥터는 현재 A씨의 가정은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곧 태어날 아이를 포함해 여덟 식구가 지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A씨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문제의 경우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통해 1) 첫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를 A씨로 기재하기 위해 첫째와 전남편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과 함께 A씨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을 받고, 2) 둘째와 셋째는 친부인 C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해 둘째와 셋째가 전남편 B씨와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받아,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를 통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하다.

법률상담소는 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제기를 위해 A씨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를 받도록 하였고, 위 소제기 시 필요한 입증자료로 친자확인 은(A씨와 첫째 그리고 C씨와 둘째, 셋째사이의 친자확인)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해 그 유전자검사비용을 외부에서 지원받기로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경제적인 지원을 받다.

그리고 A씨와 벅속아이를 포함한 여덟 식구의 경제적인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과 읍사무소의 복지담당 선생님을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하였고, 올해 9월부터 A씨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수급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마음의 짐을 덜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후 A씨는 법률상담소에 전화를 하여 여섯째의 출산소식을 알리며,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를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 않았는데, 소송을 통해 해결 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법률상담소가 A씨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A씨는 아직 100일도 되지 않은 막둥이를 안은 채 이전보다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법률상담소를 반겨줬고, 법률상담소에 A씨 가정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왔다. 현재 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는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법률상담소는 확정판결이 나는 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드릴 예정이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란 특정인들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 즉 부모자식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구이다. 구체적으로는 친생자관계 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이 있고, 이 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나 형식적으로는 혼인중의 출생자이나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례에서처럼 친모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가 검사를 통해 그 관계의 존부를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은 대세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서 제출하는 서류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 소장(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양식다운로드)
-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증명시켜줄 자료(유전자검사결과 등)

31 | 억울해서라도 퇴직금을 꼭 받아내고 싶어요.

포기했던 소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소액인데...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50대의 여성 A씨는 그동안 식당에서 일을 해왔으나 최근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일을 그만 두고 식당 주인인 사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장은 일을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씨는 퇴직금이 약 200만 원 정도로 소액이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소액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사장의 태도에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과 힘이 들더라도 꼭 받아내야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상담 및 검토를 통해 A씨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됨을 확인한 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우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것을 안내하였다.

“드디어 합의를 이끌어 내다.”

법률상담을 한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A씨는 다시 법률홈닥터에게 연락을 해왔다. 안내 받은 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였고, 조사 후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시간만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법률홈닥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고용노동청에서 절차 진행 시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봐 주었으며, 만약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일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민사 소송 절차까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었다.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난 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전절차를 진행하였고, 식당을 운영 중이었던 사장은 보전절차가 진행되자 더 이상 버틴다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그제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요구하여 왔다.

“나아갈 방향이 보이니 속이 시원해요.
앞으로 또 법률문제가 생기면 전화 드려도 되죠?”

A씨는 퇴직금 액수가 많기라도 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겠지만 소액이라 억울하면서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어디에서도 접수 방법 및 절차 진행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없어 답답했는데 절차 중간 중간 지속적으로 과정에 대해 알려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법률홈닥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퇴직금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②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③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한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사실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지급 지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퇴직금 미지급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32 삶의 터전이었던 집이 경매에....

경매에 부쳐진 임차주택에 대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안내하고 배당받은 금원을 통해 기존주택전세 임대제도를 이용하도록 도운 사례

“법원 공무원들이 나와 제가 살던 집에 경매에 부쳐졌다고 했어요. 이제는 집에서 마저 내쫓기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장애인 남편, 자녀 1명과 함께 전세보증금 2,500만원인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위 전세주택은 남편 명의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차례 계약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집주인은 차일피일 보증금 지급을 미루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A씨는 최근 법원 경매계 공무원들이 집에 들른 후 집에 경매신청이 접수 되었다고 하여 집에서 내쫓긴다는 불안한 마음에 지역에서 봉사하는 보건소 담당선생님과 함께 이천시청 법률홈닥터 상담실에 방문하였다.

법률홈닥터의 권리분석을 통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법률홈닥터는 정확한 권리분석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지참하여 올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였고,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계약 다음날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으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나 도과한 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였고, 그 결과 배당순위에 있어서 3순위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대법원 나의 경매사건 검색을 통해 검색해본 결과 1순위 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개시상태였다. 또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된 상태였다.

이러한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A씨의 남편인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고, 보증금 2,500만원 중 1,400만원을 1순위로 배당받게 됨을 안내하여 최선순위 소액임차보증금은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만,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3순위권자로서 배당순위에 따라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1, 2순위권자의 배당액을 공제하면 나머지 잔액 전액을 배당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 고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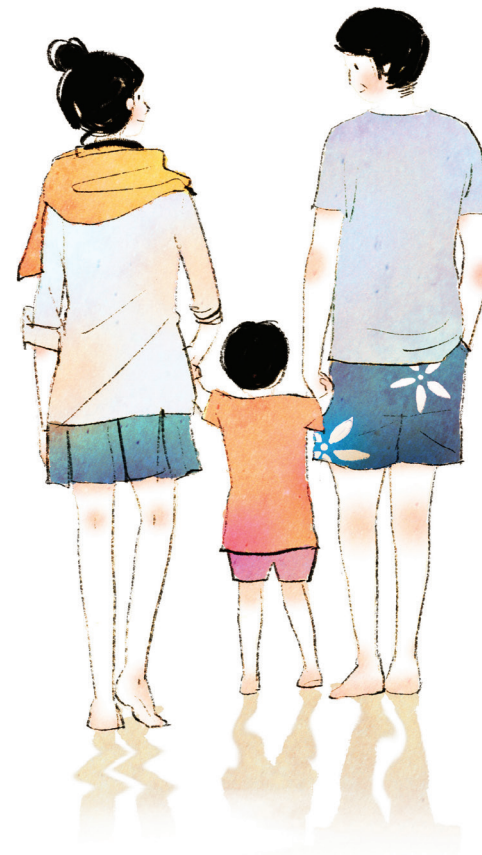
LH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안내하다.

이에 대해 법률홈닥터는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이 상당히 심한 누수 및 노후화로 인해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1,000여만 원으로 입주 가능한 주택을 생각하다가 의뢰인의 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에 착안하여 시청 무한돌봄센터에 문의하여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순위자에 해당하나 현재는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으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통상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에 착안하여 그 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신청기간이 돌아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시청 무한돌봄센터로 연계하여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전세임대 제도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하였다.

“당장 집에서 내쫓기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새집으로 이사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홈닥터의 안내를 통해 의뢰인은 당장 집에서 퇴거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님을 알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고,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이라도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음을 알고 다소 안심을 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집에 입주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알고 큰 위안을 얻고 차후 무한돌봄센터의 협조를 얻어 해당주택에 대한 입주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제도

(출처: LH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기존주택전세임대제도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 입주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대학생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입주대상자별 신청 기관은 아래 참조)에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부도임대아파트 소재지의 시·군·구청(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보증거절자, 대학생)

– 보건복지콜센터 129(긴급지원대상자)

•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 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33 행복을 지켜라! 행복지킴이 통장

수급비 통장이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운 사례

“수급비를 인출할 수가 없다고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된 A씨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노숙인으로 살아오다가 작년부터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지난 아픔을 잊고 마음을 잡아가다 보니 주변에서 많은 도움도 주고 다시 일어설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본인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고 다시금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뻐다.



그러던 어느 날 약간의 돈을 찾아 쓸 일이 있어 은행에 갔던 A씨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예전에 진 빚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잊고 있던 채권자들이 재판을 거쳐 A씨 명의의 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 놓은 것이었다.

다시 실망에 빠진 A씨의 사연을 알게 된 노숙인 생활시설의 시설장은 평소 알고 있던 법률홈닥터 제도를 떠올리고는 A씨 대신 해결 방법에 대해 전화로 법률 상담을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에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하다.

법률홈닥터가 시설장과의 상담을 거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이 금액이 입금된 통장에 대한 압류는 해제가 가능하였다. 법률홈닥터는 시설장을 통해 A씨에게 제도에 대한 설명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고 법원에 직접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A씨 혼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구조 결정까지 받아 빠른 시간 안에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몇 주 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A씨는 통장에 있던 돈을 무사히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통장이 압류되지 않도록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다.

당장 급한 불을 끈 A씨에게 법률홈닥터는 추가적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압류방지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후 기초생활수급비의 수령계좌를 이 계좌로 변경하면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에도 A씨 명의의 이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여 A씨는 수급비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A씨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했고 이후에는 수급비를 압류당할 걱정 없이 새로운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 행복지킴이 통장



≫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전용 통장의 이름이다. 기초연금, 장애인급여, 한부모가족 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되고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각 은행별로 '은행명'+ '행복지킴이통장'식으로 표시되는데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하면 된다.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된다. 출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등 일체행위가 제한되고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행복지킴이 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은행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34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사회적 관심과 손길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생후 10일된 유아를 가정에서 분리한 사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체계구축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신속대응, 보호지원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아동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철저한 대책과 사회적 관심제고에 총력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아동학대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수사를 하고 가해행위자의 퇴거, 접근금지조치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논의

를 하였다(2. 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아동학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이기에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 도와주세요.”

법률상담터가 지역단위 네트워크 회의에 방문하였을 때, 여러 복지기관들이 모여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기초수급가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동거하는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첫째아들은 군대에서 관리대상자였는데 최근에 제대하였고, 둘째아들은 지적장애3급, 셋째 딸은 중학교 2학년 유예 중으로 가스 흡입이 의심되며 가출이 잦고, 넷째아들은 누나를 따라 가출과 결석이 잦으며, 다섯째 딸 C양의 지적수준은 5세정도인데 팔 전체가 멍이 들어있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C양에 대한 B씨와 둘째오빠의 성추행 의심사실로 각각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조사 중이다. B씨는 폭력성향이 있고, 아이들 앞에서 음란한 사진을 보는 사실이 종종 있었다. 당시 회의에서 C양에 대한 아동학대 가능성 및 대응방안, 친권상실에 관하여 논의를 한 후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례를 검토하던 중, A씨는 출산을 하였고,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이 수급비지원을 위하여 아이를 만나고자 했으나, A씨는 아이를 수일동안 중학생인 셋째 딸에게 맡긴 후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은 심각성을 느끼고 그 딸과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과 경찰서 수사팀은 법률상담터에게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방임·유기도 포함된다. 특히나, 갓난아이에게 엄마의 보호는 필수적이다. A씨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생 딸에게 맡긴 후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등 아동복지기관들이 파악한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A씨가 아이를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게다가 A씨의 가정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으로서 여러 기관들이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이가 함께 생활을 한다면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분리시켜

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나,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호처분이나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서 수사팀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등과 함께 생후 10일전 아이와 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셋째 딸의 소재를 파악하여 현장에 출동하였고, A씨를 현장에 불러서 아이에 대한 방임이 아동학대인 점을 설명하고 아동학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유아의 생명과 복지를 위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하였다. A씨는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갓난아이는 보호기관에 입소시키도록 조치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독립하여 생활하면서, C양과 둘째오빠가 함께 있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 중이므로, 각 기관들을 A씨 가정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였고, 법률홈닥터도 지속적으로 C양과 A씨 등 가족을 위하여 관련 복지기관들과 함께 다각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1월부터 복지기관들이 고민한 사례인데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해결이 어려웠으나, 법률홈닥터와 함께 고민하여 일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하여도 이에 대해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 18세 미만, 고등학생도 포함)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유치원교사, 학원의 강사 등은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조사 및 보호결정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여 아동학대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임이 확인된 경우, 응급조치 등 다음의 조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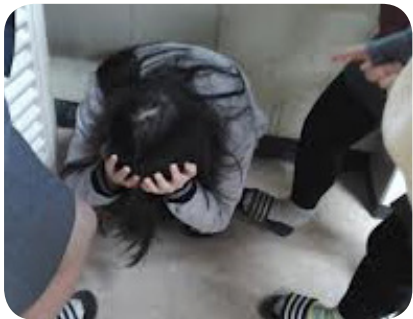
-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를 할 수 있다.
-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 의뢰를 받은 경우 상담·지도의 수행,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일시보호 등의 보호조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 **임시조치** :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그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35 | 우리 딸이 언제쯤 밝은 얼굴로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한부모가정의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어머니를 도운 사례

“아무도 저희 모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한부모가정인 A씨 모녀는 A씨가 남편과 헤어진 이후, 단 둘이 살고 있었고, A씨의 딸은 A씨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다 A씨 모녀가 이사를 하게 되어 A씨의 딸이 전학을 가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A씨의 딸은 전학을 간 학교에서 새로 만나게 된 친구들 6명에 의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 그로 인해 A씨의 딸은 항문열구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

또한 A씨의 딸은 등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학교수업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A씨는 학교 측에 위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과편지를 쓰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가해학생들과 A씨의 딸이 계속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가해학생들과 계속 같은 반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무서웠던 A씨의 딸은 계속적으로 등교거부를 하였다. 이에 A씨가 학급교체를 학교 측에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오히려 전학을 권유받았다. 결국 A씨는 자치위원회의 처분 수준이 낮은 것을 이유로 그 결정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무료 변론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면 대부분 외면하였고, 겨우 신청을 받아 준 곳은 A씨의 얘기를 건성으로 듣고, A씨가 빨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자 우선 순위 사건이 아니라며 미루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렇게 어렵사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A씨의 바람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도 컸고, A씨 모녀의 사건에 냉담하던 주위의 태도가 생각나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낙담하던 차에 우연히 홍보물을 보고 법률홈닥터를 찾아오게 되었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법원소송구조를 신청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법률홈닥터는 A씨가 들고 온 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와 진단서 등을 검토한 후, A씨에게 중앙행정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방법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임을 안내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중요하지만 A씨의 딸이 학교폭력으로 계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및 학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함을 설명했다. 그리하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안내해 드렸고, 소송비용이 없어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A씨가 부담을 느끼시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는 법원소송구조를 소개하고 신청하는 것을 도와 드렸다. 그리하여 소송구조를 위해 구조 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등을 작성하였고,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임박하여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구조를 우선 신청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해 드리고, 이곳에서 피해자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A씨 모녀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두 모녀가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드렸다.

“모두가 외면하던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A씨는 그동안 학교폭력에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러 여러 기관을 다녔는데,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거나 자신을 도와주다가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움을 주는 것

을 중단하여 사실상 자포자기상태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난 법률홈닥터는 A씨 모녀에게 법률적 도움은 물론, A씨 모녀의 억울한 사연에 끝까지 귀 기울이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준 법률홈닥터가 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36 피해자는 나인데 억울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직원을 도운 법률상담 사례

● 학교폭력 대처방법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 먼저 가해학생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도록 한다. 그러나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교사와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도움을 구한다.
-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면 피해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의 신고방법은 각 학교별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학교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이 있다.
- 학교폭력신고 이후의 법적 절차: 학교폭력신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사 · 결정 → 통보 → 중앙행위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 행정소송
-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진행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 및 법적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30대의 여성 A씨에게 그날 회식자리는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남았다.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 B씨는 A씨에게 유난히 술을 많이 권하였다고 한다. B씨가 권하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보니 A씨는 많이 취하게 되었고, A씨는 술을 깨기 위해 나왔다가 뒤 따라 나온 B씨와 같이 걷게 되었다. 산책을 마친 A씨는 이제 술이 어느 정도 깼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며 인사를 하고 나왔다.



문제는 B씨가 밤이 늦어 위험하니 자신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별 의심 없이 B씨의 차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A씨를 따라 B씨가 차에 타면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차에 탑승한 B씨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이다. A씨는 내리려 하였지만 이미 B씨는 A씨를 누르고 있었다. B씨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은 A씨는 항거하였지만 술에 취한 A씨는 평소와 같이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고, B씨는 그런 A씨를 힘으로 억누르며 강간을 하였다. A씨는 이 일을 문제 삼고 싶었지만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자신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고민을 하였다. 그렇게 숨죽이며 다시 직장생활을 하려 하였으나 더 이상 B씨의 얼굴을 보며 일할 수 없었던 A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직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A씨는 실직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용기를 낸 A씨는 B씨를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매주 법률자문을 하고 있던 법률홈닥터에게 급하게 연락을 하였고, A씨에게 민·형사상 필요한 자문을 하게 되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가해자를 고소하다.

법률홈닥터가 A씨와 면담한 날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달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다. 법률홈닥터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는 말을 확인한 법률홈닥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퇴직을 한 것이니 퇴직급여를 받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법률홈닥터는 통화내용을 녹음하도록 하였고, 녹음 기록을 근거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여경찰을 통하여 사건을 고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막막하기만 하였는데 법률홈닥터를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률홈닥터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여 진행되는 절차에서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A씨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였다. 더불어 막연해 하는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다. 신고와 고소의 의미, 수사 및 재판절차, 소요 기간, 절차진행, 피해자와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안내 후 A씨가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계하였다. A씨는 피해자는 나인데 일을 그만 두는 것도 피해자인 나이고, 고통 받는 것도 피해자인 나인 현실에 억울하고 막막하기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법률홈닥터를 만나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B씨를 고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제도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성폭력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성폭력상담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 단계부터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필요적 수사개시 보고대상 사건이므로 해당 사건 발생 시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보고되고, 국선변호사의 선정도 이때 이루어진다.

》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각급 검찰청에서는 매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각급 검찰청의 성폭력전담검사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정하거나,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수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및 증거 보전 절차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수사절차,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관련 소송의 법률적 지원, 피해자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등 형사절차 이외의 지원도 한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 없이 1301)
- 경찰청(국번 없이 112)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1899-3075)

37 먼저 떠난 아들... 가슴도 먹먹한데 남겨진 빛은 어이할꼬!

채무의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도운 사례

“아들이 먼저 떠났어요... 울다가 정신차려보니 빛만 남았네요.”



만 70세의 A씨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장례를 치르고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차라리 내가 먼저 갔어야 하는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생활하다가 다른 자녀와 손자들의 간곡한 부탁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려 노력했다. 그런데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과태료 고지서, 연체된 핸드폰 요금 통지서 및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장 등을 발견하게 되었고 A씨의

먹먹한 가슴에는 막막함까지 더해졌다.

아들은 그동안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떠난 아들에 대한 애처로움에 더하여 저 빛을 이제 누가 갚을 수 있느냐하는 생각에 더 힘든 밤을 보냈다. 며칠이 지나서 어렵게 다른 자녀와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리게만 보였던 20대의 손자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홈닥터라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가겠다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홈닥터를 찾아가기로 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다.

손자가 법률홈닥터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상담 예약을 하고 A씨와 함께 방문을 하였다. 법률홈닥터는 상담을 통하여 아들을 잃은 A씨를 위로하고 아직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채무의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다. 채무의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으며 양 제도를 비교 설명하였다.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채무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지만,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법률홈닥터는 A씨 및 손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망인이 채무 이외의 재산이 없고 망인의 4촌 이내 혈족의 인원이 적은데다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할 의사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하여, 후순위 상속권자까지 모두 같이 상속포기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필요한 서류 구비에 대하여 안내하고, 이에 더하여 아들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A씨는 법률홈닥터의 설명을 듣고 손자 및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했으며, 법원의 인용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슬픔에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힘들었는데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채무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막해하던 A씨는 빛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고맙다며 법률홈닥터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법이라는 것이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고마운 면도 있고, 또한 법률홈닥터 제도 덕에 부담을 갖지 않고 변호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법률홈닥터도 떠난 아들은 안타깝지만, A 어르신에게는 다른 자녀와 손자들이 있으니 계속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라는 바람을 전하였다.

● 상속포기



≫ 상속포기란?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재산(적극재산)은 승계하고 상속채무(소극재산)는 포기하는 등의 일부포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전부 포기만 인정된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된다. 상속 개시를 모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포기신청의 수리를 청구하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와 이하에서 설명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아래의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 상속인들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필요)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금융감독원 본·지원·출장소,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제외),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센터, 교보생명 고객센터,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센터, 삼성화재 고객센터, 동양증권 등에 조회서비스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38 야밤에 습격을 당하여 크게 다친 할아버지, 어디서 배상받아야 하나요?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긴급생계비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도운 사례

“야밤에 습격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경찰이 가해자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아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70세의 A할아버지는 자정 무렵 귀가하던 중 싸움을 하는 무리와 마주쳤다. 조용히 한쪽으로 피해 가려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A씨에게 달려들면서 욕을 퍼붓고 가슴과 머리를 가격하였다.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괜찮은지 물었지만 가슴 통증이 심하고 머리에서 소낙비 오는 소리가 들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근처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얼굴, 가슴, 머리, 눈을 다쳐 전치 4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A씨는 치료비가 걱정되어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 퇴원을 하였다.

A씨는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마치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사건에 관해서만 물어보았을 뿐,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길이 없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답답한 마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던 중 시청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법률홈닥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료 경비원과 함께 무작정 시청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A씨는 법률홈닥터에게 어떻게 하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법률홈닥터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가해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민사소송 중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형사기록을 A씨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 이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한 가해자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하여 치료비와 위자료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치료비, 간병비,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다.

A씨의 경우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였기 때문에 법률홈닥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 상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치료비, 간병비와 긴급 생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신청 하여야 하는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신청을 도와 매달 기초노령연금도 수령하게 되었다.

그리고 A씨는 검찰에서 형사사건 조사 중에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을 하였고, 법률홈닥터가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하여 일일이익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도 도울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님이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고마워요.”

A씨는 법률홈닥터를 만나 위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모두 법률홈닥터의 덕분이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A씨는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몇 마디씩 말을 더듬더듬 하였는데, 상담이 진행될수록 점점 말수가 늘었다. 본인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7년쯤 전에 진 빚을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 법률홈닥터가 무슨 일로 진 빚

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법원을 통한 파산이나 회생 신청 등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여 물어 보았더니, “변호사님, 그 돈은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둘이 가끔 술을 한잔씩 마시는데, 그 사람 노숙자예요. 자살할까봐 늘 걱정이 되요.”라며 이제는 채권자에게 매달 조금씩 더 갚을 수 있겠다고 해맑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법률홈닥터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 의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범죄로 인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긴급 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현장정리비, 취업지원비 및 기타지원(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법정모니터링 등)을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지원을 의뢰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피해자 구호전화 : 1577-1295

39 | 이혼 후 합의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감치 및 과태료 신청을 도운 사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세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들은 A씨가 맡아 키우되 남편이 매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었다. 처음 얼마동안 양육비를 받아 부족한대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지만, 몇 달 전부터 전 남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약속된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고, 연락도 끊어버렸다. 아직 어린 자녀들만 두고 직장 다닐 수 없었던 A씨는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A씨는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로 결심하였고,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전 남편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보려 하였지만, 전 남편은 전기설비 기술자로서 개인사업 형태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A씨는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으나,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낙담하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다. 복지관 이용자인 A씨의 친정어머니로부터 A



씨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된 사회복지사는,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고, 법률홈닥터에게 연락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감치 및 과태료 재판을 신청하다.

법률홈닥터가 A씨 자녀들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검토한 결과, 양육비부담조서를 기초로 ① 받지 못한 양육비 액수만큼 전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전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②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 및 과태료재판을 신청하는 방법, ③ 양육비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법률홈닥터는 사회복지사에게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전해주었고, A씨의 사정상 스스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후 법률홈닥터는 가정법률상담소 지부에 연락하여 A씨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지부의 위치와 연락처를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였다. 안내를 받은 A씨는 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였고, 구조 절차가 진행되어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 및 과태료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어요.”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A씨의 사정을 듣고 복지 지원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었지만,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에 관하여는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 특히 A씨의 경우에는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어 크게 낙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률홈닥터를 통해 A씨가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가정법률상담소 연계를 통해 신청서 작성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도움을 받은 A씨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복지관의 도움으로 직업교육을 받으며 자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양육비 이행명령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양육비 이행명령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란?

판결·심판·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를 양육비 이행명령이라 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경찰서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등 장소에 감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심판·조정·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이행명령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 아래의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

▶ 이행명령

- 이행명령 신청서 2부
- 양육비 지급의무가 표시된 판결·심판·조정·양육비부담조서의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송달) 증명서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 및 과태료 신청서 2부
- 양육비 이행명령의 정본 또는 사본

40 | 20센티미터 땅 때문에 삶의 터전인 집이 철거될 뻔 했어요.

건물철거 등 청구를 받은 모자의 항변을 도운 사례

“30년 넘게 살아온 저희 집을 철거하러니요.”



A씨는 미혼인 아들과 함께 약 20년 전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37년 전,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땅을 사서 지은 아담한 그 단층 주택이 두 모자에게는 재산의 전부나 다름없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데 최근 옆집 주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37년 동안 A씨 측의 소유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집터의 일부가 알고 보니 옆집 땅이라는 것이었다. 담장을 제외한 건물의 20센티미터 가량이 이웃 땅을 침범하여 지어졌다는 것은 A씨 모자를 비롯한 옆집 주인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고의로 그렇게 집을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동안 남의 땅을 차지하고 지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든 A씨는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라도 해당 토지부분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옆집 주인은 땅을 팔면 건폐율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다며 A씨의 집을 철거할 것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A씨는 옆집 주인으로부터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해당 토지의 10년간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었다.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한 소장을 받아든 A씨 모자는 한 달 가까이 속을 끓이며 고민하다가, 막막한 마음에 군청의 토지관리 담당 공무원을 찾아 하소연을 했고, 담당 공무원이 법률홈닥터를 소개해주어 법률홈닥터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하다.

법률홈닥터가 A씨 모자와 상담을 하며 소장과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1977년 A씨의 남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경계측량이 잘못 되어있었기에 이웃 땅 일부가 자신이 매수하는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그 위에 집을 짓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1996년 A씨의 남편이 사망하여 A씨가 토지와 집을 상속받아 살면서 현재까지 총 37년 동안이나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A씨 가족과 비슷한 시기부터 이웃 땅을 소유해 온 옆집 주인을 상대로 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생긴 옆집 주인으로서는 아무리 자신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으며,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역시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A씨 모자가 사는 곳은 소위 말하는 무변촌인데다가, 소송이 제기된 지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났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으며, 또한 당장 그럴만한 금전적인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변내용이 담긴 답변서 작성을 법률홈닥터가 돕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반소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앞으로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사망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법적인 분쟁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A씨로서는 자신의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여 지어진 이상 옆집 주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줄 알고 있었고, A씨의 30대 아들은 아직 이메일 계정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법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기에, A씨 모자가 법률홈닥터로부터 받게 된 도움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잘못된 기존의 경계측량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이웃 땅을 20센티미터 가량 침범하여 집을 지었고, 이에 37년 동안의 삶의 터전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던 A씨 모자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자신들에게도 옆집 주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판사님 앞에서도 법률홈닥터가 알려준 대로 자신 있게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덕분에 앞으로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법원으로 향하는 A씨 모자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

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문제되는 경우?

오래 전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아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에 기한 것이므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점유를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침범한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 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아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여 기존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나지 않는 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3

Part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법률홈닥터

활동 모음



서울 강서구청 한경희

● 2014. 5. 22.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긴급 솔루션회의



45세인 A씨는 폐수처리 회사에 입사하여 지방 출장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성 치매 판정을 받고 뇌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주변의 지원금을 받고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릴 만큼 재산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특정후견인심판청구에 대해 논의하였음.

● 2014. 6. 18.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 법 교육

강서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대여금, 임대차, 상속, 유언에 관한 생활법률을 강의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법률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교육하였음.



● 2014. 9. 15.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출장법률상담



B씨의 어머니가 오래전 사업을 하며 지게 된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홍닥터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소 취하되어 채무에서 벗어남.

인천 강화군청 서유진

● 2014. 9. 2. 강화 풍물시장방송, 법 교육



강화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강화풍물시장 장날, 풍물시장 방송을 통하여 장사에 바빠 시간을 내어 법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사채권의 특징, 차용증 작성법, 상가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방송강의를 진행.

● 2014. 9. 30. 강화노인 복지관, 출장법률상담

A씨는 망자인 남편의 명의로 된 건물 위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껏 자신의 토지로 알고 세금을 납부하여 오는 등 소유의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기타 상속관련 문제도 상담함.

※ 매월 출장상담 진행 중



● 2014. 10. 16. 강화장애인 복지관, 출장법률상담



장애인 B씨는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관련서류를 제공하였다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차량이 등록됨으로서 위 차량의 과태료 및 세금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음(대포차 피해자). 법률홈닥터는 매월 정기적 출장상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발견하고 불법명의로 차량 신고 및 제반 권리 구제절차를 안내함.

※ 매월 출장상담 진행 중

광주 서구청 정훈재

● 2014. 5. 14. 광주서구노인복지관, 출장법률상담



A씨는 자신이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가 짊어진 채무가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된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하다가 서구노인복지관을 찾은 법률홈닥터를 만나 상담. 법률홈닥터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절차만 거친다면 자녀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

● 2014. 6. 13. 광주송정노인복지관, 출장법률상담

B씨는 실수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2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광주송정노인복지관을 찾은 법률홈닥터에게 상담을 요청. 법률홈닥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도와드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드림.



● 2014. 9. 23. 광주중앙나누리노인복지관, 법 교육



광주중앙나누리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언과 상속'을 주제로 한 법률 교육.

경기 김포시청 김지원

● 2014. 9. 5. 마산동 「찾아가는 복지의 날」 행사, 출장법률상담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월 2회 지역 방문 법률상담 실시. 임대차, 채권채무관계, 상속, 개 인파산 등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고민과 궁금 증을 해결함.

● 2014. 9. 23. 김포노인대학, 법 교육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
-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상속 등 실생활에서 벌어 지 는 일들에 대한 생활법률을 시설이용자 130여명을 대 상으로 강의.



● 2014. 10. 24.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출장법률상담



지인을 믿고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빌려주었으나, 채 무를 변제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 률홍닥터를 찾아 상담을 요청함.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 후 법률구조공단 연 계함.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김은성

● 2014. 3. 19. 애광원 거주 장애인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인권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거제시 소재 애광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인과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으 로 인권교육 실시함.

● 2014. 5. 28. 진주제일여고 청소년, 법 교육

진주시 소재 진주제일여고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법조 인의 역할과 미래, 청소년을 위한 생활법률, 청소년의 범죄 사례 등의 내용으로 법률교육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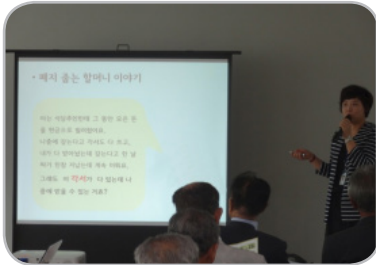
● 2014. 10. 23.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출장법률상담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장이 A씨에게 송 달됨. 법률홍닥터는 구산종합사회복지관의 정기법률 상담을 통하여 한정승인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함. 뿐 만 아니라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 하였고 법원에서 인용함으로써 A씨는 남편이 남긴 채 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

경남 남해군청 박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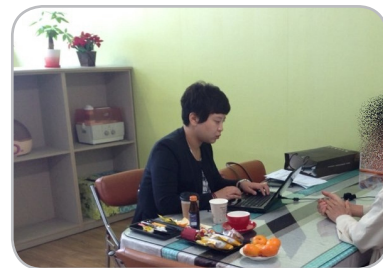
● 2014. 7. 29. 남해군노인복지관, 법 교육



남해군 노인복지관에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여금, 유언, 상속에 관한 생활법률교육을 진행함.

● 2014. 10. 29. 종합사회복지관, 출장법률상담

시설이용자들을 비롯하여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함.



● 2014. 11. 12.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성희롱예방교육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함.

대구 달서구청 이창욱

● 2014. 10. 15. / 10. 21. / 10. 29. / 10. 30. 대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보수교육 과정에서 생활법률 과목을 강의함.

● 2014. 7. 29. / 9. 16. / 10. 14. 성주군 이동복지관, 출장법률상담

교통편이 부족한 성주군(무변촌)의 지역 어르신들께 직접 방문하여 '이동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손 마사지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지는 마을 행사에 법률홍닥터도 동행함. 임대차, 대여금 등 다양한 생활법률 상담을 진행함.



● 2014. 9. 29. 서재중학교 / 2014. 10. 6. 달성중학교 등, 전문직업인 강의



대상자별 맞춤형 법교육의 일환으로 서재·달성중학교 등에서 변호사 직업의 경험과 보람, 그리고 학교폭력예방과 준법 의식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직업인 강의를 진행함.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유태권

● 2014. 6. 17. 법1동 주민센터, 출장법률상담



A씨는 위탁가정에 아들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 가정의 보호자가 아들의 일로 자꾸 돈을 요구하는 일을 겪게 되자, 법률홍닥터와 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황 파악 후 손해배상 의무 없음 확인.

● 2014. 7. 4. 아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민자 법 교육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 되기(국적취득)" 교육.



● 2014. 10. 31. 충남중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충남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경기 동두천시청 박옥성

● 2014. 6. 20. 양주시 노인회, 출장법률상담



대표적 무변촌인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시 노인회지회'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음. 이혼과 상속 및 유언에 대한 법률상담이 주를 이루었음. 이후 매월 1회 정기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2014. 9. 29. 양주시 실로암 요양원, 인권교육

양주시에 위치한 실로암 요양원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계신 시각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이용자 약 20분을 상대로 인권교육 및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하였음.



● 2014. 10. 14. 동두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 교육



동두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 중국 등에서 결혼목적으로 이주하여 오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체류, 국적취득, 이혼 등에 관한 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하였음. 교육이후 간단한 법률상담도 함께 실시함.

부산 남구청 박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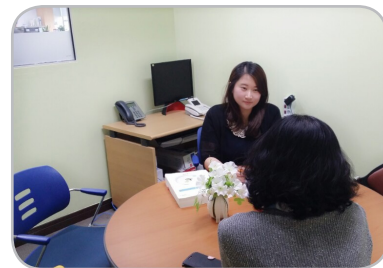
● 2014. 7. 16. 남구 온(溫, ON) 희망 네트워크 통합사례회의, 법률자문



2014. 7. 16.과 2014. 10. 24. 두 차례에 걸쳐 남구지역의 구·동 사례관리담당자, 민간시설 사례관리담당자, 교육복지사, 대학 교수 등 민·관·학 사례관리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남구 온 희망 네트워크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와 관련된 법률자문 진행.

● 2014. 10. 20. 울산 희망리본본부, 출장법률상담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울산 희망리본본부에서 해당 기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2014. 11. 6.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출장법률상담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혼, 상속, 대여금, 채무,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을 진행함.

부산 사상구청 김경애

● 2014. 9. 20. 사상나눔박람회, 출장법률상담



제4회 사상 나눔 박람회 행사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함. A씨는 15년간 화학공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주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으며,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국가인권위에 진정 등 안내.

● 2014. 10. 8. 사상구노인복지관, 출장법률상담

사상구노인복지관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2014. 11. 12. 사상구노인복지관, 법 교육



사상구노인복지관 실버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후를 위한 생활법률 교육을 진행. 상속, 유언, 임대차, 대여금 등에 대해 강의함.

서울 서대문구청 조을원

● 2013. 5. 29. 서대문구청, 동복지협의체간담회



서대문구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 법률홍닥터제도 간담회에서 법률홍닥터 제도 설명.

● 2014. 7. 21. 서대문구청 저소득위기가정 발굴 지원 상담사, 법 교육

관내 저소득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발굴을 위해 활동 중인 전문 인력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법률 교육 실시.



● 2014. 7. 10. MBC 생방송오늘아침, 법률홍닥터 방영



MBC '생방송오늘아침'과 함께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와 그 엄마의 주거를 방문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홍닥터제도 홍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임규선

● 2014. 4. 16. 서울푸드뱅크 '희망마차', 출장법률상담



법적 지원에서 벗어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푸드뱅크 '희망마차'와 연계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2014. 4. 16. 용산구 청파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희망마차'에서 개인파산, 주택임대차, 특별한정승인 등 총 6건의 법률상담이 이루어졌음.

● 2014. 8. 22.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교육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중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개요 및 제도 관련 'Q&A', 주요 개정 내용, 한부모가족 관련 주거지원 제도 등에 관한 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함.



● 2014. 9. 30. 우성원 인권지킴이단 회의, 법률자문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우성원에서 인권지킴이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분기별 인권지킴이단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통하여 시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 침해 예방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대구 수성구청 손지영

● 2014. 7. 4.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다문화가정 법 교육



경북 구미시에는 대규모 공단이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많음. 이들의 사회생활, 주거, 의료 및 각종 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상담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적취득 및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교육 진행. 이후 상담사들의 생활법률 교육 진행.

● 2014. 4. 27.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외국인근로자 법 교육

대구시 달성군 내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달성군복지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법률 법 교육 진행함. 7개나라 근로자들이 수업을 들었고, 강의 후 상담을 진행함.



● 2014. 10. 30. 경상북도청 기초생활보장담당 워크숍, 법 교육



경상북도 내의 각 시군에서 기초생활보장관련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상식에 대한 법교육을 진행함.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김태진

● 2014. 11. 7.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출장법률상담



A씨는 친구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수년째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이므로 무료소송구조 대상자에 해당. 대여금 반환 소송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설명하고 법률구조공단 연계함.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

● 2014. 10. 6.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법 교육

수원지역 6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률교육 실시.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자들을 상담하며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 등을 민사, 형사, 가사(여성·아동), 가사(노인) 분야로 나눠 4시간 동안 진행함.



● 2014. 6. 25. 오산시청 현장방문 복지서비스의 날, 출장법률상담



오산 오색시장에서 공공·민간·사회복지관련 기관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취득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찾아가 보건,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경기 이천시청 황준협

● 2014. 6. 26. 다사랑센터, 법 교육



인권교육, 체류국적, 이혼관련 법제교육을 실시한 후, 법률상담을 진행함.

● 2014. 7. 4.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출장법률상담

대여해 준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률상담을 요청, 법률홍닥터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안내함.



● 2014. 7. 9. ~ 10. 29. 이천시 송정중학교, 법 교육



이천 소재 송정중학교에서 2개 반씩 전 학년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정유미

● 2014. 6. 25. 목포 이랜드노인복지관, 법 교육 및 출장법률상담



생활에 필요한 대여금, 임대차, 상속 등에 대한 교육 후, 일조권, 손해배상, 대여금청구, 형사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함.

● 2014. 7. 24. 동여수노인복지관, 법 교육 및 출장법률상담

생활에 필요한 채권채무관계, 임대차관계, 결혼과 상속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대여금, 토지무단점유, 상속, 불량물품구입 등 상담을 진행함.



● 2014. 9. 18. 목포시 네트워크 사례회의, 법률자문



목포에 있는 목포시장애인복지관,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명도복지관, 목포시 희망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등 목포시 내 복지관련 공무원과 시설들이 참여하는 사례회의에 매달 참석하여 법률자문.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박은지

● 2014. 6. 26. 전주다문화센터, 출장법률상담



A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귀화를 하였는데, 필리핀에 있는 A씨의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이와 관련한 절차 및 귀화관련 문의를 하여 전주다문화센터에 방문, 이미 A씨가 귀화가 된 상태이므로 그녀의 아이들은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에서 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절차와 관련서류 설명해 드림.

● 2014. 9. 19. 순창통역센터, 법 교육

순창 통역센터에서 청각장애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사를 동반하여 생활법률(대여금, 상속 등)에 관해 교육.



● 2014. 10. 22. 양지노인복지관, 출장법률상담



B씨는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장 작성방법이 궁금하여 양지노인복지관에 상담신청, 유언의 종류를 설명해 드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양영화

● 2014. 10. 2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출장법률상담



A씨는 2년 전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는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최근 아내가 가출한 사안. 이혼 절차 및 관련 법리(재산분할, 위자료 등)를 안내하였고, 재판상 이혼을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 연계.

● 2014. 8. 18. 사회복지법인 혜정원,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사회복지법인 혜정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실시. 법률홍닥터 사업 설명 후 개정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례별로 알아보는 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대처 방안 교육.



● 2014.11. 14. 가족사랑상담소, 출장법률상담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례관리회의 중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상자 B씨와 법률상담 진행. B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항공기 이용 중 안전요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음. 이 사건 관련 민사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한 문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거나 협약이 안 되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함을 안내. 소송 진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경북 경산시청 오지현

● 2014. 9. 3. 노인대학, 법 교육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제20기 노인대학 2학기 개강식 날 80여명을 대상으로 채권채무관계 주택임대차 재산상속법 등 생활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음. 이때 강의 들으신 어르신들이 시청으로 지금도 상담을 자주 오심

● 2014. 8. 25. 경산시 북부동 주민센터, 출장법률상담

경산시 "찾아가는 무료법률 순회 상담실"을 운영하였음. 관내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법률홍닥터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였음. 주로 상속 및 재산관련 상담이 많았음



● 2014. 9. 22. 경산시 장애인복지관, 개인정보법 교육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법 강의를 하였음. 개정된 개인정보법도 알려드리고 그동안 업무하시면서 궁금한 점 질문에 답변해 드림

경기 광명시청 경규연

● 2014. 5. 12. 광명노인종합복지관, 출장법률상담



광명노인복지관 정기법률상담
A씨 이혼 관련 문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절차 및 재판상 이혼 사유 안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설명드릴

● 2014. 7. 17.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출장법률상담

금천노인복지관 정기법률상담
B씨 6년 전 대여한 금전에 대한 반환절차 문의, 지급 명령 및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관련 안내, 필요한 서류 및 민사소송절차 안내



● 2013. 10. 10. 신남중학교, 법 교육



신남중학교 학부모대상 '한번 배우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이라는 주제로 생활법률교육 진행함

충남 태안군청 김민정

● 2014. 6. 24. 고남면 실내체육관, 출장법률상담



80세의 A씨는 아들이 채무를 지고 잠적했다는 이유로 채권자로부터 심한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어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심.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아들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점, 불법추심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함

● 2014. 7. 8. 이원면 종합복지회관, 출장법률상담

B씨는 75세로서 본인 명의 농지의 상속 문제로 추후 자녀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심.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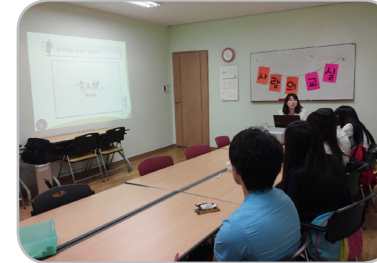
● 2014. 8. 20. 태안지역자활센터, 법 교육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하는 저소득층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금전소비대차,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주제로 하여 2회에 걸쳐 법률교육을 진행함

서울 동작구청 전경인

● 2013. 6. 21. 강남청소년수련관, 법 교육



강남청소년수련관과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 수업 중 준법교육 1년간 진행
학교폭력의 유형 및 형사절차에 대한 법 교육

● 2014. 7. 24. 상도복지관, 출장법률상담

상도복지관 정기방문상담
A씨 대여금반환관련 문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완료,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 안내



● 2014. 9. 30.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법 교육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사 선생님들 대상 법 교육 진행
주로 상담하는 이혼관련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내용과, 가정폭력 관련 개정된 법령 등에 대한 법 교육

경기 남양주시청 민동순

● 2014. 4. 30.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출장법률상담



A씨는 주택임차인. 임대차계약이 묵시갱신 된 후 중도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해주겠다고 함.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 및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자로서의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자문 제공

● 2014. 9. 25.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출장법률상담

B씨는 주택임차인. 상담인의 임차주택이 현재 경매 진행 중. 상담인은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완료하였으나 2순위 우선변제권자임. 이에 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원 및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위한 법적절차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



● 2014. 11. 14. 남양주시 도농고등학교, 사이버범죄예방 교육



법률홍닥터는 남양주시 도농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온라인 음란물 관련 범죄,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 저작권격권 및 저작재산권 침해,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 전자금융사기를 포함한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 관련 강연을 진행함

충남 천안시청 한윤정

● 2014. 7. 16. 성정1동 주민센터, 출장법률상담



A씨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본인이 행사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경제형편이 어려워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까 고심 중, 혹시 전처가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친권 및 양육권의 결정과 변경 등에 대하여 법률 상담함.

● 2014. 9. 11. 아산시 통합솔루션회의, 출장법률상담

B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분노조절이 되지 않으나 취업을 희망하고, 가출한 모를 찾고 싶어함. 부는 뇌병변2급 장애로 건강관리가 되지 않고, 모는 B씨의 폭력으로 가출한 후 연락이 닿지 않음. 모가 가출한 것인지 실종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적절차를 안내함.



● 2014. 9. 23.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적취득 법 교육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 체류자격, 신분창설, 개명 등에 관한 법률교육 진행.

4

Part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법률홈닥터

감사글 모음



● 2013. 6. 19.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물

제목 : 이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필명 : 김자

지난 5월 중순경 송파구 잠실6동 주민자치센터의 무료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담당변호사인 이정훈님이 궁금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향후 대처방안까지 알려주셔서 골치 아팠던 소송 건을 쉽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 변호사께서는 면담 당시 불명확했던 내용에 대해 다음날 전화를 주셔서 다시 한 번 법조문을 정리해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막막할 때 서민을 위해 도와주시는 무료 자문시스템이 있어 참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도움 주신 이변호사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2013. 7. 17.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물

제목 : 강서구청 금윤화 변호사님을 마르고닳도록 칭찬합니다^^

필명 : 변호사님짱!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어려울 때 마침 훌륭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큰 도움 받았기에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언니 덕분에 변호사님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언니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데다가 아버지는 안계시고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식당일도 그만두시고 몸져 누워 계시는 등 형편이 너무 가슴 아픈 가정인데, 저도 썩 넉넉한 형편은 아니기에 언니와 최대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함께 울고 웃은 지 약3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울면서 전화가 오기를,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문을 막 열고 들어와서 전자레인지랑 세탁기랑 여기저기에 뭘 붙여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언니 어머니께서 10여 년 전에 300만 원 정도의 카드빚을 지셨는데, 어머니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또 한 차례 소송이 들어가면서 집안 물건들이 강제압류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카드빚은 그 사이 이자가 붙어서 약1,800만원으로 크게 불어난 상태였고, 채권도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가면서 대부업체에서 강제로 문 열고 들어와 빨간딱지를 붙이고 간 것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나 세탁기 등은 언니와 어머니에게 유일한 재산인데 빨간딱지가 붙었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언니가 사는 지역의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역 변호사님이시고 무료로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으시지는 않을까 했는데, 첫 만남 때부터 저희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하고 다정하게 상담해주셨고, 이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주시

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다 작성해주시면서 올해 초부터 약 5개월 동안이나 도와주셨습니다..ㅠ_ㅠ

먼저 동산압류강제집행을 막아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머리 아프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처음 접해보는 사건이었고 주변사람들은 '불가능' 하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는 '아니다. 가능할거다.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용기 북돋아주셨고 힘껏 싸워주셨습니다.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수개월 이어진 이 사건은 결국, 이자는 삭감되고 원금을 할부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어머니께는 큰 부담이지만 2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수월해진 것이죠.

어머니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수급비도 월3만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으며 경제활동도 어려우시고 몸도 아프시고 남편도 없는데다가 자녀는 장애가 있는데도 법은 정말 냉정하더군요. 싸우다가 안 되면 파산하자고 했는데 파산도 금액이 적어서 안되더라고요. 개인회생은 직업이 없으셔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숫아날 구멍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초생활수급비가 월 3만 원 가량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선풍기도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요즘 어머니는 요양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여전히 생활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님 덕분에입니다.

앞으로 금윤화 변호사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서 더 많이 싸워주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힘껏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금윤화 변호사님 마르고닳도록 칭찬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13. 10. 22.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광진구 법률홈닥터 김현정변호사 감사합니다.

필명 : 민수엄마

2013년 3월 정말 하늘이 노랗고 죽고 싶었는데 변호사님 도움으로 정말 세상에 희망에 기대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도 이혼소송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직접오시고 상담도 잘해주시고, 오늘 판결문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신고 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내내 전화도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직접 방문하여 서류작성도 잘 하여서 받은 결과 같습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변호사님 빈자리가 느껴지는 마음으로 복지사님께 감사인사 대신 전했는데 이렇게라도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 2013. 11. 20.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법률홈닥터 변호사 정훈재 님을 칭찬합니다.

필명 : 장서봉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권 노인복지회관 소속으로 수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의 대가로 월 20만원의 금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직에 있을 때 월 400~500만원의 월급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으며, 따라서 참으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마음대로 안 된다더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소중한 금전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뜻밖에도 '금전통장압류'를 당하는 불명예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참으로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의 포기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제가 소속하여 있는 노인회관 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을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는 하였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고 해서 상담신청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장시간을 기다려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1~2회 정도 전화통화 및 직접 사무실인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2(농성동) 한림빌딩 1층을 방문,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하였더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면서 법원에 제출해 보라고 해서 그대로 하였더니 제가 월요일에 제출하였는데, 불과 3일 만인 목요일에 은행으로부터 통장압류 해지 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참으로 기쁘고 통쾌했습니다.

이 모두가 정훈재 변호사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변호사님은 매월 1회씩 본 노인 회관에 오셔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고객이 많을뿐더러 상담을 받는 모든 이들이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담에서부터 서류준비 작성 및 제출 등 일련의 전 과정에 걸쳐 그토록 친절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주신 법률홈닥터 정훈재 변호사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민을 위한 홈닥터 모범변호사로 칭찬합니다. 끝으로 일반적인 관념에 의하면 변호사로서의 수입료를 받을 법도 한데, 그런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수입료는 전혀 없었으며, 100퍼센트 무료서비스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자체를 알고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쉬울 뿐입니다. 보다 널리 홍보하여 이러한 제도를 활용 일반 서민들의 권익을 지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2013. 12. 8.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양천구청 법률 홈닥터 경규연 변호사님을 칭찬합니다~^^

필명 : 부러질 뻔한 화살

저는 강서구에 사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금전적인 고통과 그로 인한 부부사이의 불화, 약간의 폭력 등으로 사춘기 두 아이들의 방황, 그리고 그 모든 일들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아내의 돌연한 가출~ 그리고 그 아내가 남겨 놓고 간 수천만 원의 빚으로 전 그야말로, 아니 우리 가정은 완전히 썩대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락할 길도 없고 찾을 길도 없었던 아이 엄마, 그리고 당장 코앞의 불덩이를 해결할 길이 없어 막막하던 제게 희망의 불빛이 되어 주신 경규연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양천구에 살고 있었던 전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고 수없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조차도 받아들이지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쁜 생각도 말고 희망을 가지라며, 더구나 지금은 이사를 해서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도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손길은 더욱더 마음에 사무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의에 찬 채권자가 월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 어찌지도 못하다가 그에 대한 이의신청, 사문서 위조교사, 등등의 문제로 거의 한 해가 다 가도록 시간을 허비하며 법 앞에 평등한 존재도 될 수 없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해오던 제게 경규연 변호사님은 마치 먹장구름을 일시에 걷어 내주는 한 줄기 눈부신 빛으로 나타나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제게 새 삶의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절망의 늪에 빠져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던 제게 본인이 감기에 걸려 아프신 상황에서도 다 잘 될 거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잘 견뎌내라고 힘을 실어주시고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주면 성심껏 최대한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 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분의 그 진심어린 말씀이 절 견디게 해주었고 결국 그 분께 다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규연 변호사님~!! 이렇게 힘없고 돈 없고 하루하루 성실히 빛에 허덕이며 갇아나가려 애

쓰며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과,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는 그 단순한 말의 큰 힘을 알게 해 준 이런 법률 홈닥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심어주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법무부 관계자님들께 더 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좋은 제도가 영원히 희망 없는 서민들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래오래 이 좋은 제도가 유지되게 힘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산산이 부서졌던 우리 가정은 비록 상처의 흔적은 아직 품고 있고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 너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희망을 품고 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웃을 날이 있을 거라는 자그마한 믿음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아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2014. 1. 2.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글

제목 : 광명시청 법률홈닥터 우혜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필명 : 최태본

남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억울함에 누구 한 사람 잡아주는 이 없다면, 집안에 법률적으로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며 한탄, 탄식, 억울함에 하소연 하시던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서 그리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일이 제 앞에 닥쳤습니다. 근 20년은 될 법한 일입니다. 제가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제 앞을 가로막는 안내원이 잠깐이면 된다면 2층 건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모여 있었고, 앞에서 약품을 들고 열심히 선전하는 소리에 솔깃했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다니... 먹기만 하면 당장 담배를 안 피운다니... 정말 희소식에 좋아라하며 망설임 없이 신청을 하니, 식품 두 박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을 다 복용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한 통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것이 되돌아 왔고, 저는 다시 반송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류 창고에 그냥 방치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돈을 제가 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먹지도 않은 식품에 돈을 내야 한다니 그 때부터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십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채권자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바뀌었으며 액수도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면서 여러 차례 저에게 독촉을 하였습니다.

협박, 압류한다는 통보, 집안 가구 몰수한다는 통보까지.

2000년도에 법의 손을 빌려 다 해결 받았습니니다. 이제는 한 숨 돌리려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줌마야, 내가 못 받아내는지 두고 보아라’ 그러나 저는 우편물이 와도 전화가 와도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았고 방관했습니다.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니다. 엄마 용돈이라며 두 아이들이 주는 돈을 조금이라도 저축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싶어 가까운 수협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법원을 찾아 서류를 떼어보자, 알도 못하는 업체였고, 전화를 해보니, 이미 해결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서류를 만들어 재판까지 한 상태였고, 피고인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그들이 승소한 결정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서류를 떼려고 법원을 찾아가니, 이미 채무가 여러 군데를 거친 상태니, 거쳐 온 곳을 알아야 압류 해제가 된다는데, 법무사 여기저기를 찾아다녀도 법원에서 결정 났으니 돈을 갚을 수밖에 없다는 냉담한 답변 외에는 더 이상 저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통장을 압류된 채로 두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창피함, 수치스러움, 죽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떠올렸는가. 자포자기로 죽지 못해 산다고 할까.. 2013년 7월 시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니 이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어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만드는 일이 또 다시 벽이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무렵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 대문 앞에 한 장의 홍보물이 있었는데, 동에서 무료법률상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2013년 11월이 되어서야 압류된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통장만이라도 새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동안 법률사무소를 수차례 찾아 창피했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철산2동 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계신 법률홈닥터 우혜정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의 문제를 우혜정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변호사님과 그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서 소송을 진행할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3년 12월 말일에 변호사님께서 서류를 보시고 마지막 채권자를 찾아서 통화를 하시더니 채권자에게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들과 통화를 한 끝에 마지막 채권자를 찾아서 전화통화로 압류해제 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았고, 추심업체로부터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추심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통장 압류를 해제한다는 것과 약 값에 대해서도 채무 소멸을 인정하는 서류를 받아주시면서 이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 앞에 예쁘고 가냘픈 우혜정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한 사람 있어야 한다고 늘 한



탄하시던 우리 부모님 앞에 우혜정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셨다면 아프게 삶을 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형제 일이라도 그토록 살뜰히 봐줄 수 있을까?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을까? 우리 같이 힘없고 약한 서민을 위해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한 법무부와 광명시와 살뜰히 일을 봐주신 우혜정 변호사님께 어떻게 갚을 길이 없네요.

더 널리 홍보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길이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법률홈닥터...이리저리 비틀거리다, 털썩 주저앉은 나를 손잡아 준 곳. 법률홈닥터 우혜정 변호사님. 법률홈닥터 우혜정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는 날까지 통장은커녕 마음을 줄이면서 은행과의 거래도 못하면서, 채권자라며 압류통지와 때로는 공갈협박에 시달리며 살았을 겁니다. 부디 법률홈닥터 우혜정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셔서 우리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널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 4. 14.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법률홈닥터 전경인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필명 : 한석구

법률홈닥터 전경인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 계서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포구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석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 법률적 지식이 없어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할지 몰라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우리동에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고 조부모와 삼촌과 함께 사는 18살 청소년인데 삼촌은 가정폭력으로 구치소를 수차례 수감된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삼촌의 가정폭력과 함께 성장해야만 했고 지금까지 가정폭력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까지 중퇴하게 되었는데 최근 삼촌이 또 가정폭력으로 수감되었는데 삼촌의 협박 편지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어 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할지 고민하던 중 작년 구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법률홈닥터 전경인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변호사님께서서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하며 다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며 안정시켜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법률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도 연계해 주셨

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듣고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스마일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은 아이는 이제 차츰 안정을 찾고 더 밝아진 모습입니다.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거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야겠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신 전경인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에 계시다가 최근 동작 법률홈닥터로 가셨는데 가신 후에도 끝까지 도움을 주시려고 일일이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명도 받았습니다.

동작으로 가셔서 아쉬움이 크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을 응원하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전경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2014. 4. 21.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법률홈닥터 손지영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필명 : 둥이아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좋은 인연 혹은 나쁜 인연을 맺으며, 모두들 알콩달콩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까지나 행복한 순간이 지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것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내 가족과 친구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출근 준비를 하던 저에게 형님이 파티마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응급실로 오라고 하던 누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달려간 응급실에는 평소 에 잠을 주무시는 듯한 모습을 한 형님이 인공호흡기에 의지 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언제나 저를 아끼고 위로해준 형님이기에 더욱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중환자실에 계시던 형님은 3일째 되던 1월 29일 사랑하던 가족과 아끼던 친구들을 끝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님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현실은 조카들의 양육과 살아생전 가지고 있던 형님의 빚 등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음을 형님의 장례를 치루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생소한 단어와 해석에 관련된 많은 판례들을 일반인이 접하기란 무척 힘든 게 사실이라 지인을 통해 법률홈닥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장례를 치른 후 손지영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카들의 양육문제와 형님과 별거 중이던 형수, 그리고 형님의 빚의 정리절차 등 상세한 상황 설명과 판례들의 설명은 당시 어지럽게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아이 같던 저의 상황이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리가 된 이후 행동으로 옮기며, 모르는 상황은 다시금 손지영 변호사님께 여쭙기

를 10여 차례. 형님의 사망이후 정리가 어렵게만 느껴지던 상황이 하나둘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법을 다시 해석하고 정리한 것도 사람인 일이라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으로 대응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게 사실일 겁니다.

법률홈닥터라는 좋은 제도의 혜택을 본 국민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힘쓸 것이며, 세상에는 어두운 곳보다 밝고 따뜻한 곳이 많음을 보여 주기위해 몸소 실천하시는 법무부와 법률홈닥터 손지영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 website. The main content is a 'Thank You' post (칭찬합니다) for Lawyer Son Ji-young (손지영 변호사님). The post is titled '칭찬은 법무부를 더욱 활기치게 만듭니다.' (Praise makes the Ministry of Justice more lively). The author is '둥이아빠' (Dung-i-a-bba) and the date is 2014.04.21. The post content describes how Lawyer Son Ji-young helped the author's family deal with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death of their brother-in-law, including inheritance and debt settlement. The post is categorized under '국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and '대화의장' (Dialogue Field).

● 2014. 5. 21.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서대문구청 조을원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필명 : 김태일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김태일입니다.

작년에 부친상을 겪고 관련하여 상속포기 소송을 준비할 때 매우 막막하였습니다.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포기하려던 때 아는 분의 조언으로 구청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에 방문하여 조을원 변호사님을 처음 뵈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상속포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만약 조을원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하였거나 법무부에 법률홈닥터 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항상 큰 도움을 주시는 조을원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 2014. 6. 19.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논산시청 민원상담실 정소영 인권변호사님에 대한 민원상담 후 소감글

필명 :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논산시청 법률자문을 얻으려고 이전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만 일주일에 단 하루만 상담이 있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시간에 출장 나와서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구조공단은 조금 거리상 시간상 불편이 있었는데 아무튼 현재는 누구

나 언제나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어 법에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 특히 서민층을 위해 힘써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서민이 그 시간에만 딱 맞춰오기도 조금 불편하였는데, 이렇게 법무부에서 상주하여, 서민계층을 위해서 법률홈닥터를 시행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권변호사님

법률홈닥터를 법률지원 인권구조과 인권변호사인 정소영인권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시 상담 후 (민원인) 너무 친절하게 또한 상대방을 말을 경청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주셔서 미리미리 대처해 나아갈 수 있게 좋은 조언과 조력자를 만나서 상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글 올립니다.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보호해주시면서, 취약계층 및 법률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에 친절하게 상담 및 경청해주신 점에 대해 몇 번 방문 하에 상담한 민원인으로서 다시 한 번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몇 차례 상담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한 갈팡질팡하고 답답한 심정에서 논산시청 법률홈닥터를 찾아 방문한 민원인데 시청변호사님께 방문하여 상담하는 동안과 상담 후에 상담실 문을 나오는 순간 아니 시청을 나오는 순간까지 제가 많은 길을 배워간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잘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끝까지 아주 친절하시게, 상대방에 입장에서 배려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공감해주신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상담으로 인해서 상담전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잘 대처해 나가고 있고, 법에 무지한 사람으로 생활법률 지식과 아니 더 나아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법률지식을 알아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각종 생활법률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참고로 일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도 잘하지만, 그보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은 현재 논산시청에서 시행하는 법률홈닥터가 훨씬 낫습니다.

또한 달리 다른 곳 가는 것보다 여기서 찾아오시는 것이 상담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낄 수도 있고, 벌수도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논산시청 법률상담소가 다른 곳도 물론 좋지만, 여기서 상담하는 것이 더욱더 신속정확하게 상담인 것 같습니다.

법률상담소가 정말로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작지만, 서민들을 위해 힘써주신 법무부 관계자님들과 인권변호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힘써주시면, 더할 나이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2014. 6. 26.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글

제목 : 태안 홈닥터 김민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필명 : 임대성

홈닥터 김민정 변호사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 부모님께서 땅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제가 나서서 열심히 하려 했지만, 법과 거리가 먼 일을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안군청에 홈닥터 김민정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상냥하고 자세하게 상담과 서류작성 등을 도와 주셔서 너무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게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며 세월이 지나도 시골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훌륭하신 변호사님 되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4. 7. 7.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전남 목포 정유미변호사님 칭찬합니다.

필명 : 김민수



저는 1956년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 어린나이에 직장생활 하던 중 1979년도에 친척이 사우디 건설 노동자로 간다기에 저도 따라 2년 반을 근무하고 1984년 결혼해 첫아이 7개월 될 때 또 다시 극동건설 사우디 건설노동자로 2년 반 근무하고 고향에 와서 조그마한 회사에 작은 돈이지만 전 재산을 투자하고 근무하며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는데 갑자기 회사 경영이 어렵다면서 모든 것을 숫자로만 강요하고, 더군다나 정신지체 장애인 1급을 갖고 있는 자식을 둔 저로써는 모든 걸 내려놓고 생을 마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 중에 우연히 지역 신문을 보던 중 법률복지서비스 전화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며 법이 있는데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냐며 정말 정말 제 마음에 와 닿게 차근차근 일주일 동안 전화를 주고받으며 끝까지 타협점을 찾게 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회사와 저는 합의점을 찾아 너무나도 고마워서 당장 사례를 해야겠다고 1시간 거리를 달려가 인사를 했더니 사례는 커녕 오히려 위로 받고 '저는 법무부 소관 정유미 변호사입니다'라고 하시며 법률 홈닥터 제도 안내문을 주시면서 선생님과 같은 분들께 이러한 제도들도 있다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며 오히려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포에 정유미 변호사님을 만나 뵈고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단적인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법률 홈닥터에 문의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운명을 바꿔주신 정유미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 2014. 7. 8. 속초시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닥터 김지성 변호사님을 칭찬합니다.

필명 : 정금희

김지성 변호사님을 칭찬 합니다.

이곳저곳을 다 다녀 봤지만 저를 도와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차에 사회복지협의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아침 일찍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이 너무 친절히 상담해주시고 방법을 차근차근 일러주셨습니다.

법률 용어도 모르는 제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 질문에도 친절히 답해주셨습니다. 해결 안 될 줄 알았던 일이 변호사님 덕분에 두 달여 만에 깔끔하고 완벽하게 법적 해결이 되었고 저의 모든 신용이 회복되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저희 같은 서민들을 내 가족 일처럼 도와주신 김지성 변호사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글로서 감사를 대신함이 못내 죄송할 따름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 2014. 7. 10.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양천구 법률홈닥터 송진성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필명 : 초록마음

저는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송진성 변호사님을 칭찬합니다. 집안에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서 법률상담이 절실하던 차에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보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복지사님이 친절하게 신청을 받아주시고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힘들었는데도 변호사님과 약속시간도 조정해주셔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로 가는 바람에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였는데도 변호사님께서 밝은 모습으로 맞아 주셔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변호사님과 여러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그동안의 갑갑함이 풀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법에 너무도 무지하고 법률상담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률홈닥터의 송진성 변호사님 덕분에 답답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길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을 이 게시판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저 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한번 송진성 변호사님과 신정종합복지관 복지사님들, 양천구 법률홈닥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세요.



● 2014. 8. 29.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광주시 남구 정재훈 변호사님을 칭찬합니다

필명 : 한은숙

정말 감사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3. 12. 27.에 내 생애 주택마련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전 세입자가 들어갈 집과 날짜가 안 맞는다고 해서 2014. 2. 4.에 집을 비워줬습니다 그래서 2014. 3. 1.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개인적으로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계약한 것은 집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계약할 때 집에 하자가 없다고 하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부동산 측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안심의 말을 듣고 아무 의심 없이 계약을 했는데 2014. 3. 2. 전 세입자를 통해 누수와 크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수부분에 전 주인을 통해 한차례 실리콘 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 후 여름 장마 때(2014. 8. 18.)에 곳곳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과 전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두 사람 다 못해주겠다고 발뺌하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측은 통화 아닌 문자로 이야기하자고 하고 전 주인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마음을 끓이다가 없던 일로 하자니 억울하고 대응하자니 힘도 없어 가슴도 답답하고 무기력까지 오고 귀에서 환청까지 들리며 아이들(13세, 8세)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재훈 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처음부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도움 받아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를 통해 힘없는 시민을 무료로 도와주고 대응해주는 국선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만 시청한바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한 저에게 현실로 나타나서 아무 대가도 없이 도와주는 민원의 소리 국선 정재훈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냥 울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국선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이러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 많이 홍보되어 힘없는 시민들이 알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좋은 변호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일이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되기를 기도드리고 변호사님 마지막 까지 도와주십시오.



● 2014. 10. 23. 강서구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물

제목 : 강서구청 법무부 한경희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필명 : 박다은

안녕하십니까.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박다은 사회복지사입니다. 10월 14일 경, 강서 희망드림센터 법률홈닥터 한경희 변호사님께 연락을 하게 되어 급히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경희 변호사님께서는 당일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기일이 다음주라는 점을 확인하고 금일 바로 복지관에 내방하여 이용자를 만나 법률상담으 진행하셨습니다. 김00님은 현재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배신감과 큰 충격으로 답변서 제출을 하지 못하고 조정기일만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경희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그 다음날 답변서를 바로 받아 답변서 제출 3일 전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00님께서 작성하신 감사편지 중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생활을 한 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불어넣은 법률홈닥터 한경희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포기할 인생인데 두 분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열심히 어린 딸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감사 편지를 작성하여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 2014. 11. 11.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물

제목 : 천안시청 법률홈닥터 한윤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필명 : 새댁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아산에서 쪽 살아온 시민입니다.

이번에 천안 시청의 법률홈닥터 변호사이신 한윤정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 저희의 요청 사항을 누락하여 실행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결혼식을 다 시 치를 수도 없는 일이기에 예식장 측에 해당 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 적당한 정도라고 생각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예식장 측에서는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하려면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비용 등 문제가 있지 않겠냐며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합의 과정에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소송하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막막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천안 시청에 법률홈닥터라는 제도가 있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찾아가 한윤정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많이 공감하며 들어주신 것에서 저는 일단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장 작성 및 이후 소송 진행의 모든 내용을 자상하게 검토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전화 주셔서 챙겨주신 것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이제 소송 관련된 일로 빚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런일이 없어도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이야기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원래 힘든 일이 있으면 조그만 위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 이런 좋은 제도와 훌륭한 변호사님 덕분에 정신적 위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까지 받았으니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윤정 변호사님,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 뵈게요! ^-^

앞으로도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 하는 분들께 법률 상담으로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The screenshot shows the '민원참여' (Citizen Participation) se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website. It features a post titled '대회의장 칭찬합시다' (Thank you for the Conference Room). The post content describes a citizen's experience with the 'Law Home Doctor' service, praising the lawyer Han Yunjeong for providing timely and effective legal advice, resolving a dispute over wedding expenses. The post include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etails:

제목	천안시청 법률홈닥터 한윤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필명	새댁
등록일	2014. 11. 11
조회수	149

The post also includes a section for '댓글' (Comments) and a '댓글쓰기' (Write Comment) button. The website header shows the Ministry of Justice logo and navigation links.

서민에게 힘이되는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

발 행 일 : 2014년 12월

발 행 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427-720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전 화 : (02) 2110-3263

팩 스 : (02) 2110-0354

홈페이지 : www.moj.go.kr

편집 · 인쇄 : 동광문화사(02-503-5165)

